



코스피	2114.35 (-17.58)	코스닥	708.63 (-0.83)
금리 (연이자율)	1.91 (-0.01)	환율 (원/달러)	1105.30 (-5.40) (4일)



**[뉴스]**  
저금리 파티 끝났다  
버블과 함께 뱅 터지는  
갭투자자-강동전세  
02

# 49세 총수시대... 4대그룹 화두는 '조용한 혁신'

〈오너평균 연령〉

재계 이달까지 인사 마무리 LG그룹 임원 대부분 유임 등 안정 경영 속 혁신에 방점 조직개편 통해 4차산업 대비

재계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개혁 드라이브에 한창이다. 수시로 단행되는 조직 개편과 인사를 놓고 명분보다는 실리에 초점을 맞추면서다.

경영 세대교체가 만든 분위기가 최근 주요 그룹은 오너 3·4세 경영체제로 전환을 마무리 짓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개 대기업 그룹 총수는 평균나이가 49세에 불과하다.

### ◆ 경영 안정에 방점

4일 재계에 따르면 4대 그룹은 이달까지 2019년 정기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LG그룹은 인사를 발표했고, 삼성 전자계열사와 SK가 6일을 전후해 인사를 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도 이달 중 정기 인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세대' 총수가 운영하게된 그룹사들은 안정을 중심 과제로 삼는 경향이 뚜렷하다. 올해 처음 '구광모 체제'에 돌입한 LG는 지

달달 임원 인사에서 부회장단을 대부분 유임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구 회장이 40세에 불과한 만큼 세대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국 선대 회장 사람들을 대부분 남기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최근 삼성 금융계열사는 5개 계열사 최고경영자를 모두 유지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전자계열사도 사장단 평균 임기가 3년에 가까운 상황, 내년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SK그룹도 최고경영진을 대폭 교체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만은 다소 다른 분위기다. 올 초 사장단을 대부분 50대로 개편했고, 정이선 수석부회장이 취임한 후인 11월에도 해외 부문 인사를 대폭 물갈이했다. 정기 인사에서도 적지 않은 임원 인사가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차 그룹은 임원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부여해왔다"며 "역성장 늪에 빠지면서 쇠신 노력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 실무 중심 혁신

또다른 변화는 혁신이다. 그룹사들은 위로는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아래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LG는 미래먹거리를 정조준한 조직개편을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CEO 직속 로봇사업센터와 자율주행사업Task를 신설하고, 융복합사업개발센터를 부문으로 승격시키는 것 등을 통해서다.

삼성전자도 작년에 인공지능 연구조직 'AI센터'를 새로 만들면서 조직 개편을 시사했다. 올해에는 DS부문에 속한 전자사업팀을 확대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SK도 최근 SK네트웍스가 AJ센터 카를 인수하는 등 모빌리티 사업에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그룹 전자사업을 통합 지휘할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도 큰 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외 권역본부 체제 정비를 마무리했고, 조만간 새로운 지배구조개편안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래차 분야에서 쇠신을 단행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기상위성 '천리안 2A' 발사 임박

4일 오전(한국시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 위치한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천리안 2A호를 탑재한 아리안5ECA 발사체가 발사대에 장착돼 있다. 천리안2A호는 천리안 1호의 임무를 물려받은 기상 관측 위성으로 한반도 및 주변 기상과 우주 기상을 상시 관측한다. 발사는 오는 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

## 투자·소비 부진한데 물가는 오르고

# 성장 계걸음... 동력 식었다

3분기 GDP 성장률 0.6%  
2분기 연속 0%대 머물러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0.6%로 2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남은 4분기에는 0.84~1.21% 성장해야 한국은행이 목표한 2.7%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투자와 소비가 모두 부진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소비자심리지수(C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경제 심리지표는 하락하고 있어 사실상 경제 동력이 식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00조1978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분기보다 0.6% 성장했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았다.

성장률을 분기별로 보면 경제성장세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0.2%)을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 1.0%로 증가했으나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0.6%로 내려앉으며 0%대 성장이 고착화해 가는 모양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2.0%)로는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한은이 목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84~1.21%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4분기 성적표는 2, 3분기보다는 더 좋아야 전망치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은은 2.7% 달성이 불가능한



/유투이미지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7~8월 폭염과 6월 지방선거로 미뤄진 재정 지출이 4분기에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유류세 인하 정책 등 내수활성화정책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하방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상방 요인도 많이 있다"며 "정부 지출이 다시 늘어나고 유류세 인하, 입국자수 증가 등의 긍정적 요인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은은 2.7% 성장률에 대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을 2.8~2.9%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는 부진하고 소비심리는 얼어붙은 상황에서 물가마저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 고용부진 등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지출 항목별로 속보치와 비교하면 설비투자가 0.3%포인트 개선됐으나 건설투자와 민간소비는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하락조정됐다. 건설·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2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구매력도 줄었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계절조정기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2009년 1분기(-3.1%) 이후 거의 10년 만의 감소세다. GNI는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소득 등을 합친 것으로 국민들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소비심리는 2개월 연속 악화됐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0(기준치 100)으로 작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 10월 99.5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치 100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아졌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기준치 100 이하인 73을 기록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가 2개월 이상 연속 2%대 오름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7~9월 2%대 상승을 보인 이후 14개월 만이다. **〈3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89@



구광모 LG 회장은 1978년생으로 40세에 불과하다. 사이언스파크를 둘러보는 구 회장 /LG



최태원 SK 회장은 38세인 1998년 회장직을 맡아 아직 50대 젊은 총수다. 지난해 프로야구 시리즈를 관람하는 최 회장. /뉴스

## '광주형 일자리' 광주시-현대차 잠정 합의

임금체계·노동시간 등 협상 6일째 최종 투자협약 체결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긴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 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의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백석광주경실련 대표 등 노사민정협의

회 위원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광주시와 현대차 간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 경과를 보고받고, 선진노사관계에 관한 광주시 최종 협상(안)에 대한 공동 결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과 인력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시는 4일 현대자동차와 잠정 합의를 마치고 5일 최종 협상(안)의 노사민정 공동결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최종 협상에 나서 투자 협상

을 마무리하고 6일째 투자협약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투자 조인식에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투자협상단은 노동계로부터 포괄적 협상 전권을 위임 받은 것을 토대로 현대차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해 속도를 낸 끝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협약서에는 광주시가 법인 자본금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21%(590억원)를 부담해 신설하는 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가 19%(530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봉태형 기자 bcy2020@

# 버블과 함께 뱅! 터질라, 갭투자자-강통전세

## 저금리 파티는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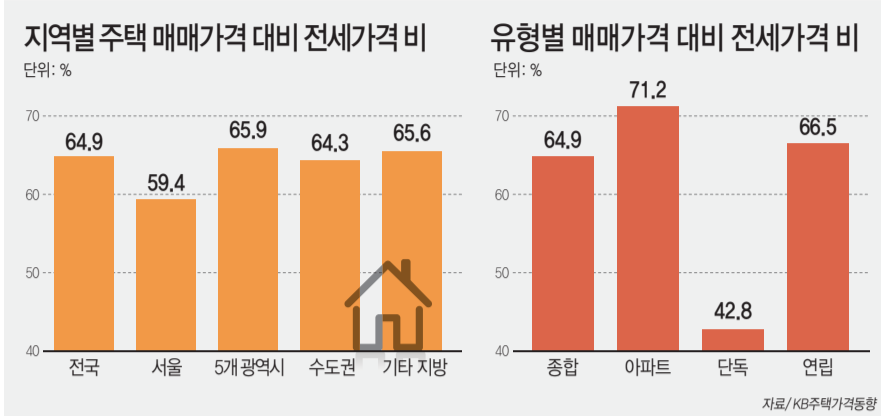
(3) 가계 하우스푸어는 '부담 더'

기준금리 1.75%까지 치솟아  
내년 주택값 0.4%p 하락 전망  
3억 대출, 금리 0.25% 상승때  
연 이자 75만원 가량 늘어나

“빚내서 집 사라.”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조이노믹스)을 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사상 최저치(1.25%)로 떨어지자 대출받아 집을 사는 이가 급속도로 늘었다. 그로부터 4년여 후, 기준금리가 1.75%까지 오르고 전세가격이 60% 밀로 떨어지는 등 하우스푸어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받아 집을 마련한 하우스푸어 또는 매수 대기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1월 인상(1.25%→1.50%) 이후 1년 만의 기준금리 상승이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는 분위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더해져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부동산광장의 집계를 보면 11월 서울 부동산 거래량은 3451건, 하루 평균

119건으로 지난 2013년 8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레 절벽'이 이어지자 집값도 조금씩 내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맞물리며 부동산 거품이 차츰 꺼질 것이라 기대감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9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4%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기준)은 1.1%, 전세가격은 1.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주택시장 조정기에 여러 약재가 있는 상황에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급진적인 집값 하락보다는 점진적인 효과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값 조정기에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 시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3억원을 빌린 사람은 이자가 1년에 75만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의 각종 대출규제로 대출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리 부담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저금리 시대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하우스푸어는 금리 부담에 집을 되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특히 '갭투자'를 시도한 투자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동안 매물이 없었다가 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매도자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갭투자를 심하게 한 분들이 이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의 하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 하자,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 열풍이 불었다. 실제로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11개구) 아파트는 전년 말과 비교해 2015년 6%, 2016년 4.69%, 2017년 5.65% 오르다가 2018년에는 14.26%나 상승했다.

합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서울지역의 매수 관망에 따른 가격 조정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늘어난 이자부담은 대출을 통해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노리기 점차 어려워지는 구조다"라며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갭투자) 공격적인 투자 패턴이 점차 숨을 고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대출을 무리해서 받은 하우스푸어가 갭투자인 경우가 제일 문제"라며 "기준금리 인상에 전세가격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차주(투자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외식업 경기지수 또 하락... 침체 길어질 듯

aT, 외식업체 경영주 3000명 설문  
2분기 연속 ↓... 4분기도 하락 전망

올해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하락하는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67.41로 2분기 68.98보다 1.57p 하락했다. 이는 지난 1분기 69.45 이후 2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것이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의 체감 경기와 앞으로 3개월간(미래)의 경기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외식업체 경영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도출한다.

이 지수는 지난해 2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1년간 68~69에서 보합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분기(65.14) 이후 6분기 만에 처음으로 68 미만으로 떨어졌다.

특히, 오는 4분기를 전망한 미래경기전망지수는 71.68로 나타나 경기침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aT 관계자는 "전반적인 지수 추이가 단계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미래경기전망지수가 현재 3분기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평소 미래경기전망지수가 현재 지수보다 5p 상당 높은 것을 고려하면 경기침체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분기 지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치킨 전문점이 65.85로, 2분기 77.26에서 무려 11.41p 급락했다.

올해 조부터 시작된 평창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특수로 인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평소 수준으로 회귀한 결과로 aT는 풀이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65.39로 2분기 67.68보다 2.29p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단계적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등 유사 음식점업은 79.84로 2분기 74.34보다 5.5p 상승하는 등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였다.

분식 및 김밥 전문점은 2분기 66.91에서 3분기 69.52로 2.61p 높아지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3분기 지수를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광주시가 72.93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라북도가 71.29, 인천시가 69.81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붕어빵 장사도 고물 수집상도

# 산재 대상, 자영업 4개업종 추가

(産災)

1인 자영업자 65만명 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대상 1인 자영업에 음식·도소매 등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혼자 붕어빵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와 구두수선 자영업자 등도 일을 하다가 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이발소 주인, 웨딩 플래너, 산후 조리원, 구두닦이 등 다양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시행령은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 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이고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 가입이고 보험료는 자기 부담이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속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시행령은 건설기계 27개 직종 가운데 사업장 전속성이 강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 혜택이 약 11만명의 건설기계 특고 노동자에게 확대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직업성 암의 원인인 벤젠 노출 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낮추고 석면의 경우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범위가 넓혔다.

앞서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5년 188건에서 지난해 303건으로 증가했고 산재 승인 비율도 같은 기간 48.9%에서 61.4%로 높아졌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한경연 "조부모→손주 상속 할증과세 완화해야"

"세대생략 할증과세 韓·美·日만 존재  
유지면 부당 상속사례 문제 발생"

고령화시대를 맞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줄 때 30% 할증을 적용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에서만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일본의 경우 공제, 특례 등의 배려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현행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은 세대생략이전 금액에서 유산세(상속세)와 통합해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1120만달러(약 125억원)여서 실제 과세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일본은 소자녀·고령화의 급속화에 따라 세대 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가능하도

록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 주택취득·교육·결혼육아 자급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등을 도입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로 한 세대를 뛰어넘은 부의 이전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세대생략할증과세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상속 관련 납세순응비용(세제의 운영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또 "외국보다 불리한 조세정책으로 인해 자국 자본까지도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며 "이런 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세대생략할증과세와 단기제 상속공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조부모가 손주에게 상속하고 부모가 3년 이내 사망한 경우(세대생략할증과세) ▲조부모가 부모에게 상속하고 3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해 손주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단기제상속공제)에 각각 내야 하는 세액을 비교하면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시 5억3200만원의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생략된 중간세대가 사망하면 이미 부과된 할증 과세 금액을 단기제상속 공제분처럼 환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경연의 주장과 달리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있다. 고액 자산가들이 두 번에 걸쳐 이뤄지는 증여세 과세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 일종의 '세테크'라는 이유에서다.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간사는 "세대생략 상속은 고액 자산가 중에서도 최상위층의 극소수가 절세하려는 의도로 활용하는 제도인데 할증 과세가 적용된다고 해서 경제활동 의욕을 떨어뜨린다거나 자산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5G 목표는 같아도 가는 길은 달라요”

# SKT는 ‘자율차’... KT는 ‘AI’... LG는 ‘원격제어’

**SKT** 5G 디바이스 테스트랩 실시  
**KT** AI 로봇 ‘로타’ 1호 가입자로  
**LG** 5G 원격제어 트랙터 최초 개발

“5G 시대에는 기업간 거래(B2B), 공공(B2G)분야의 플랫폼과 연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이다.”(향창규 KT 회장)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1일 5G 전파를 쏘며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의 막을 올렸다. 당장 5G 서비스를 체험하는 것은 기업이나 주요 도시 등이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넘어 기업 비즈니스 영역으로 범위를 넓힌 셈이다. 이동통신 3사는 상용화 사례로 B2B 서비스를 내세우며 서비스 선점 경쟁에 나섰다. 각 사마다 공략하는 서비스도 다르다. 자율주행차부터 인공지능(AI), 원격제어 기술 등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로 확장된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자율주행차에 서비스 활용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일 SK텔레콤 5G 자율주행차는 경기 화성 자율주행실증도시 ‘K-City’와 시흥 일반도로에서 테스트 운행을 시작했다. 그간 SK텔레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차에 달려서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주력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 과제도 수행하며 자율주행 기술과 교통 시스템을 접목해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SK텔레콤 5G 디바이스 테스트 랩 연구원들이 계속 장비로 5G 디바이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SK텔레콤

### <이동통신 3사 5G 전략>

기업	5G 1호 가입자	서비스 동향 및 전략
SK텔레콤	영화공업	전국 13개 시·군 주요 지역에 5G 네트워크 제공 5G글로벌 혁신센터·5G 디바이스 테스트 랩 개소
KT	AI로봇 ‘로타’	주요 인구 밀집 지역과 도서산간 지역 커버하는 상용 네트워크 제공 5G 모바일 핫스팟(MHS) 단말(4만9500원에 10GB 제공)
LG유플러스	LS엠트론	국내에서 가장 많은 4100여개의 기지국 구축 내년 3월 약 85개 도시로 5G 커버리지 넓힐 예정

/자료=각사

차량, 사물인터넷(IoT), 산업용 동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고민도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5G 단말 출시를 위해 성남 분당사옥에 ‘5G 디바이스 테스트랩’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곳은 5G 단말기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최종 관문이다. 시험실 안에는 5G 기지국, 중계기와 전파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계측기, 전자파 측정 기기 등이 있다. 또 25cm 두께의 강판으로 된 전파 차폐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 주파수 신호를 완벽히

차단해 정확한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주파수 적합성과 성능을 검증한 후 전파 도달이 약한 가상 환경을 만들고 100여 가지 시나리오별 테스트도 진행한다.

KT는 5G 1호 가입자로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의 인공지능(AI) 로봇 ‘로타’를 선정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로타는 전망대의 안내 역할을 담당하며, 방문객의 질문에 응대하고 사진 촬영과 전송을 할 수 있다. 아울러 KT는 자사



지난 30일 KT 직원들이 광화문에 설치된 5G 기지국을 점검하며 삼성 5G 스마트폰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KT

AI 서비스 ‘기가지니’를 통해 홈 IoT 기술을 접목한 아파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의 기가지니 아파트는 음성명령으로 아파트 단지와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국내 최초로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레지던스에 AI 호텔을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실감형 미디어도 KT의 주력 사업이다. KT는 2020년까지 5G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한 국내 실감형 미디어 시장 규모를 약 20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가상·증강 현실(VR·AR)전용 펀드조성 등 콘텐츠 투자도 한다. 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말 제조사, 게임 등 콘텐츠 업체, IT기업 등이 참여하는 VR얼라이언스를 출범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5G 원격제어 기술을 산업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의 5G 1호 고객을 LS엠트론으로 선정한

것도 LG유플러스와 함께 ‘5G 원격제어 트랙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5G 원격제어 트랙터는 관제 시스템 지도에 이동경로를 설정하면, 수십km 떨어진 곳의 트랙터는 설정된 경로로 이동하면서 무인 경작을 한다. 관리자는 마치 실제 트랙터 조종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것처럼 트랙터를 원격 조종하며 관제센터 모니터에서 작업현황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이 기술을 지뢰제거나 폐기물 처리, 건물철거 등 산업현장 중장비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넷플릭스, 유튜브 등과 손잡고 5G 시대 콘텐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입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5G 도입은 정해진 이동통신 시장에 가입자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변화로 다가올 것”이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5G가 있어 B2B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 요인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5G 통합형 광선로감시시스템 개발

**LG유플러스**

광선로 관리·장애위치 실시간 파악  
5G·유선 등 모든 품질서 사용 가능

LG유플러스는 기지국과 중계기 사이에 구축된 유선 광선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 원인 및 장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형 광선로감시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광선로감시시스템은 5G 기지국과 중계기간 구간은 물론 유선 기간망에도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광선로의 손실, 단선지점, 거리 등을 측정하는 광섬유 측정기능(OTDR)과 광신호를 파장 별로 분석해 품질을 측정하는 기능(OPM)을 모두 제공하는 국내 최초 통합형 광선로관리시스템이다.

기존 광선로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은 광섬유 측정기능(OTDR)을 기반으로 광 케이블의 단선 지점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통합형 광선로감시시스템은 최대 16만 개의 광케이블과 광케이블내 5G 서비스에 사용되는 광파장을 동시에 감시해 광선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G망 기지국 장애 발생 시 광선로 단선, 선로 품질저하 또는 기지국 장비 문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형 광선로감시시스템은 기존 서비스에 영향을 없는 파장을 사용해 5G망뿐만 아니라 유선 기간망 구간에도 확장해 사용할 수 있어 모든 광선로 구간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인 코위버와 함께 개발한 이 시스템을 5G 네트워크 구간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제조사와 함께 망품질을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이상현 NW개발담당은 “통합 광선로감시시스템 개발로 서비스 중인 광신호의 품질과 광선로 단선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서비스 장애 원인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새로 개발된 광선로감시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을 신속하게 파악해 조치할 수 있게 됐다”며 “5G서비스의 끊김 없는 고품질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 파격적 승진에 외부 수혈로 순혈주의 타파 힘써

>> 1면 ‘49세 총수시대...’서 계속

### ◆파격 승진까지

혁신 의지는 인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 인사를 발표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엔 파격적인 인력 배치가 적지 않게 이어진다.

LG전자는 최근 1979년생인 송사용 책임을 상무로 승진시켜 주목받았다. 그 밖에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술직을 중용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그룹사들도 기술직을 우대하는 분위기여서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세대 총수는 외부수혈에 적극 나서면서 순혈주의를 타파하려는 노력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희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해외 인재 수혈로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다. 피터슈라이어 디자인 총괄 사장을 비롯해 알버트 비어만 고성

능 부문 담당 사장 등 자동차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연달아 영입해왔다. 꾸준한 스타트업 발굴하고 투자하면서 인재 찾기도 적극적이다. 구광모 LG 회장도 취임 후 외부 인사를 4명이나 중용했다. 순혈주의를 강조하던 LG그룹에서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SK와 삼성은 경영진보다는 실무진을 중심으로 외부 수혈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AI 부문에서 해외 인재 찾아나서는데 주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 임원 비율이 5%를 넘을 정도다.

/김재용 기자 juk@

## 가계소비·투자 부진 이어져 성장 발목 잡을수도

>> 1면 ‘성장 계걸음...’서 계속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지난해보다 2.1% 상승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도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은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가계대출과 기업 자금조달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가계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져 경

제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건조한 흐름이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심리지표 하락에 더 큰 염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주 기자 hj9@

# '1조 증자' 순풍에 돛단 카뱅 자본조달 번번이 차질 케뱅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인터넷은행 3분기 실적 희비

카뱅 적자폭 줄고 흑자전환 가시화  
순손실 3배 이상 차... 격차 벌어져

인터넷전문은행 1, 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실적 명암이 엇갈렸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분기 순익분기점(BEP) 수준까지 적자폭을 줄이며 내년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어려움에 자산성장도 정체됐다.

4일 은행연합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난 3분기 순손실이 각각 39억원, 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카카오뱅크는 순손실 159억원, 케이뱅크는 순손실 580억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카카오뱅크의 총여신과 총수신은 각각 7조7887억원, 9조3587억원이다. 총자산은 10조7407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케이뱅크의 총여신과 총수신은 각각 1조1817억원, 1조7288억원이다. 총자산은 1조9810억원에 머물렀다.

벌어진 격차는 자본력에서 비롯됐다.

## <인터넷전문은행 3분기 실적 현황>

구분	kakaobank	bank
순이익	-39	-185
누적 순이익	-159	-580
총여신	77,887	11,817
총수신	93,587	17,288
총자산	107,407	17,810
연체율	0.13%	0.64%

단위: 억원

/자료=은행연합회 경영공시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고객 저변을 빠르게 넓히는 가운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규모 확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며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반면 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케이뱅크는 완만한 성장 및 수익성 중심의 경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두 차례의 유상증자로 1조원을 확보했다. 든든한 자본력에 카카오뱅크는 내년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의 BEP 달성을 위한 대출 규모를 10조원 내외로 추산한다"며 "현재 카카오뱅크의 자산규모 및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연간 기준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케이뱅크는 세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주주 구성이 파편화된 탓에 매년 당초 계획됐던 규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상증자가 이뤄졌다. 케이뱅크 이사회는 지난 10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주금 납입일은 오는 20일이지만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케이뱅크는 자본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 쿼터제'를 운영하면서 지난 몇 달간 대출 중단과 판매제계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시장의 경쟁은 내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이달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보유를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시행령이 이미 입법예고됐으며, 다음달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도 ICT 기업 자산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는 넘는 경우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인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중앙청사에 모여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나유리 기자

## '수수료 인하'에 카드노조 강력 반발 "乙들간의 합의 무시한 것 카드사, 구조조정 내몰려"

카드사 경쟁력 제고 확대 개선안  
구조조정 방지방안 마련 등 촉구

카드노조가 내년 1월 말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카드산업 노동자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카드노조는 4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 마련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 삼성카드를 제외한 6개 카드노조(롯데, 비씨,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간부 등 100명 가량이 모였다. 카드노조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영세 중소기업과 함께 4가지를 합의하고 전달했지만 금융당국은 일방적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카드노조는 지난 11월 12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에 앞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단체를 찾아 목소리를 듣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카드노조는 금융위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만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금융위가 카드노조-자영업자의

"을들간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어떤 해결책도 없이 카드사에 적자를 감수하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금융위가 발표한다고 카드수수료가 인하하게 되면 내년 초 카드노동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되면 카드사는 약 1조 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전년도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1조 2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신용카드사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드노조는 카드사 구조조정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3가지를 요구했다.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노조 추천인사 참여 및 과도한 프로모션 제한 등 마케팅 관행 개선 ▲1월까지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확대 개선안 마련 등이다.

장경호 전국금융산업노조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이미 카드사는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내년부터 1억4000억원의 손실이 예정돼 있다"며 "1월말 추가적으로 나올 방안에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과 마케팅비용 제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KEB하나은행-신보 혁신 성장·일자리창출 협약

KEB하나은행은 4일 을지로 KEB하나은행 신사옥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성장 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KEB하나은행은 총 102억원(특별출연금 95억원, 보증료지원금 7억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며, 총 2868억원의 협약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김문호 기자 kmh@



4일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www.pdna.co.kr

## 사랑받는 피부 비밀은 DNA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아데노신 함유

### 바다 송어의 물찬탄력, DNA 에너지를 담다

# P+DNA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를 담은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피어질 듯 건조한 피부는 잔주름의 원인. 바다 송어의 물찬 보습, 원초적 탄력으로 메마르고 지친 피부를 지켜주세요.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소듐 DNA,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 등 풍부한 피부보호 성분이 수분과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의 얼굴을 기쁘게 들여다 본 적 없었나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던 시간, 아름답게 빛났던 그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세요.  
아름다운 변화, P+DNA 크림과 세럼이 함께 합니다.

\* 7가지 피부보호 성분 함유(크림) :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베타글루칸, 어성초추출물, 치아씨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올리브오일 외

주름개선기능성

유수분밸런스개선

피부탄력개선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070-4870-0708

고객상담센터

# 김승연의 화학그룹 비전... 한화토탈 5300억 투자로 선봉



한화토탈이 53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통해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투자로 한화그룹은 지난 8월 발표한 화학부문 5조원 투자 계획 실행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화그룹의 화학부문 회사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를 이어왔다. 앞서 한화케미칼은 VCM·PVC 증설, 석유수첨수지 공장 신설에 3000억원을, 여천NCC(나프타분해시설)는 에틸렌, 부타디엔 생산설비 증설에 7400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한화토탈은 충남 대산공장에 연간 폴리프로필렌 40만톤, 에틸렌 15만톤, 프로필렌 4만톤 생산 규모의 설비 증설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총 투자금액은 5300억원이며 2020년 연말 완공이 목표다.

이에 따라 한화토탈은 3800억원을 투자해 고부가 제품 생산 중심의 40만톤 규모의 폴리프로필렌 공장을 건설한다. 증설이 완료되면 한화토탈의 폴리프로필렌 연간 생산능력은 112만톤으로 증가, 국내

충남 대산공장에 5300억원 투자 40만톤 폴리프로필렌 공장 건설 합성수지 생산 확대·효율 극대화

선두로 올라서게 된다.

폴리프로필렌은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프로필렌을 원료로 생산되는 합성수지로 전기전자소재, 자동차 내외장재, 필름 및 포장재, 식품용기 등 생활 속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다.

한화토탈은 전 세계 폴리프로필렌 시장이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매년 5%씩, 1940만톤 규모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한화토탈은 1500억원을 투자, 대산공장 내 NCC 가스 크래커 증설을 통해 에틸렌 15만톤, 프로필렌 4만톤을 추가로 증산할 계획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한화토탈의 석유화학 기초원료 연간 생산량은 2018년 현재 에틸렌 109만톤, 프로필렌 93만톤 수준에서

에틸렌 155만톤, 프로필렌 110만톤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화토탈은 지난해 4월과 12월 9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에틸렌 31만톤, 프로필렌 13만톤, 폴리에틸렌 40만톤 증설을 결정했는데 이어 이번 증설 발표로 2020년까지 대산공장에 총 1조430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셈이다.

한화토탈은 이번 증설로 석유화학 기초원료 생산시설과 그 원료를 활용하는 합성수지 생산시설 확대를 동시에 추진, 공장 생산 및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가스 분해시설 및 생산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제조원가와 규모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합성수지 생산 구조를 고부가 제품 생산 위주로 재편한다. 현재 국내 최대 생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SM(스티렌모너머), PX(피라자일렌) 등 기초유분 사업에 편중된 주력사업군을 합성수지 사업까지 확장해 석유화학 시장 변동성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이번 증설로 저가 원료를 기반으로 한 복미 가스화학의 공세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시장의 증설 경쟁 등 날로 치열해져만 가는 석유화학 시장 변화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증설 공사 완료로 글로벌 종합 화학·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한화토탈 대산공장 폴리프로필렌 생산시설. /한화토탈

## SK(주) C&C-컨센시스 MOU

###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허브 만든다

SK(주) C&C는 세계적인 블록체인 리더 기업 컨센시스와 '블록체인 신규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적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양사의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를 합쳐 국내 기업들이 블록체인 킬러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양사는 각기 보유한 블록체인 플랫폼·기술·서비스에 대한 공동 분석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사업 확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이라고 불리며, 허가된 참여자만 접근 가능한 서비스다.

SK C&C의 클라우드 제트에 컨센시스의 주요 서비스 및 플랫폼 탑재도 논의한

다. 이를 통해 어느 기업이나 신속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컨센시스의 교육 프로그램인 '컨센시스 아카데미'와 협업을 기술 인력 양성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SK C&C의 테크 트레이닝 센터를 활용해 연말까지 한국 내 이더리움 감사 육성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 시장에 적합한 커리큘럼 개발도 논의하기로 했다.

SK C&C는 ▲하이퍼레저 기반의 블록체인 모바일 디지털 ID 인증 서비스(I DaaS) ▲국내의 선사들을 위한 블록체인 물류서비스 ▲블록체인 투표시스템 등의 솔루션 및 서비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컨센시스는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삼성전자, 2028년까지 올림픽 공식후원

LA올림픽까지 무선·컴퓨팅 후원 5G·AR·AI·VR 기술 권리 확보도

삼성전자가 2020년까지였던 올림픽 공식후원 계약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후원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 파리 올림픽'에 이어 '2026년 동계올림픽', '2028 LA 올림픽'까지 무선·컴퓨팅 분야 공식 후원사로 참가하게 됐다.

4일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대표이사 사장과 다케다 쓰네키즈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마케팅위원회 위원장은 호 텔신라에서 2028년 하계올림픽까지 후원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무선 및 컴퓨터 제품뿐 아니라, 제품에서 구동되는 5G, AR(증강현실),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기술의 권리까지 확보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30년 간 글로벌 올림픽 파트너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삼성전자는 '1988 서울올림픽' 지역 후원사로 올림픽과 인연을 맺은 이후, 1997년 IOC와 글로벌 후원사인 TOP 계약을 체결하고 '1998 나가노 동계올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 대표이사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다케다 쓰네키즈, IOC 마케팅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이 2028 LA 올림픽까지 후원을 연장하는 조인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능), VR(가상현실) 기술의 권리까지 확보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30년 간 글로벌 올림픽 파트너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삼성전자는 '1988 서울올림픽' 지역 후원사로 올림픽과 인연을 맺은 이후, 1997년 IOC와 글로벌 후원사인 TOP 계약을 체결하고 '1998 나가노 동계올

픽'부터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로 활동해 왔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은 "인류의 혁신을 이끌어 온 무선 및 컴퓨팅 분야 제품 기술과 미래를 열어갈 4차 산업 기술을 통해 올림픽 정신을 확산하고 전 세계인들의 축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 싼타페, 국내 SUV 최초 '10만대 클럽' 가입?

현대자동차 간판 모델 그랜저IG와 싼타페TM이 올해 내수 누적 판매 '10만대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싼타페TM이 연 10만대 판매를 돌파할 경우 이는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가운데 처음이다.



현대차 싼타페.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6만4131대(내수 기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늘었다. '국민 세단' 반열에 오른 그랜저IG는 6월 이후 월 7000~9000대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다시 1만1911대로 반등했다. 1~11월 누적 판매는 10만2682대로 '10만대'를 넘겼다.

현대차의 싼타페는 완전변경(풀 체인지) 모델로 출시된 3월 1만3076대의 판매를 기록하며 그랜저(1만598대)를 앞선 이후 8개월 연속 이어갔던 월간 베스트셀링카 자리에서 내려섰다. /양성운 기자 ysw@

전년 동월(4522대) 대비 99.0% 늘어 올해 11월까지 누적 판매는 9만8559대다. 최근 월 판매량이 9000~1만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이 없는 한 연말까지 10만대 돌파가 확실하다. 한국에서 연간 내수 판매 10만대를 넘긴 SUV 모델은 싼타페TM이 첫 사례다. /양성운 기자 ysw@

## SK네트웍스, 말聯에 가전 렌탈사업 진출

SK네트웍스가 말레이시아에서도 가전 렌탈 사업을 시작한다.

SK네트웍스는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가전판매법인 'SK네트웍스 리테일 말레이시아' 판매인 발대식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박상규 SK네트웍스 사장 등 경영진과 판매 인력인 MC(Magic Consultant) 등 5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SK네트웍스는 지난10월 말레이시아 판매법인을 개소했다.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소득 수준이 높고

한국형 정수기 렌탈사업 모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올 초부터 진출을 추진해왔다.

취급하는 제품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냉온수 직수 정수기도 판매한다. 이름을 우리말로 그대로 표기한 'JK SOO'로 정하고 정수기 한류를 불러온다는 계획이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오늘은 SK매직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알리는 뜻깊은 날"이라며 "동남아 경제의 중심인 말레이시아에서 항상 고객의 목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SK네트웍스

리를 경청하고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 감동 실현을 통해 말레이시아 No.1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G90이 한타 외면한 이유는... 4년전 타이어 불량 여파?

〈한국타이어〉

제네시스브랜드 콘티넨탈 등 사용  
신형 그랜저IG도 미쉐린 제품 채택  
하이브리드 제품에는 넥센타이어

현대자동차가 최근 출시한 G90을 포함  
한 제네시스 브랜드 차종에 수입산 타이  
어를 채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산  
브랜드인 한국타이어와의 관계가 소원해  
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재 제네시스 브  
랜드 차종에는 미쉐린과 콘티넨탈 등 수  
입산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 G90의 경  
우 18인치 모델에는 미쉐린, 19인치 모델  
에는 콘티넨탈을 사용한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에 출시된 제네  
시스 EQ900을 시작으로 수입산 타이어  
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제네시스 브랜드



지난 27일 출시한 제네시스 'G90'. 타이어는 수입산 콘티넨탈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차종은 아니지만 신형 그랜저IG의 18,  
19인치 타이어에도 미쉐린 제품이 들어  
간다. 단 17인치 모델에는 금호타이어, 하  
이브리드 제품에는 넥센타이어를 사용한  
다.

현대차 대리점 관계자는 "제네시스 브

랜드를 포함한 고가의 차종에는 전부 미  
쉐린이나 콘티넨탈 같은 수입산 타이어  
를 사용하고 있다"며 "그 외 차종에는 넥  
센타이어나 금호타이어의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

와 한국타이어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  
니냐는 관측과 함께 지난 2014년 제네시  
스에 장착한 한국타이어 한쪽에서 공기  
압 부족으로 발생하는 휠오토우 마모 현  
상이 일어나 진동, 소음이 발생했던 일을  
그 이유로 제기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종이나 브랜드 특  
성에 따라 공급받는 타이어가 다르다"며  
"타이어 업체와의 사전계약에 따라 진행  
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G90' 출시를 기념해 지  
난 3일 프랑스 타이어 제조기업 미쉐린과  
제휴를 맺고 고객이 미쉐린 타이어를 새  
로 구매할 경우 1년간 타이어와 관련된  
손상에 대해 무상 교환 혜택을 주는 '대미  
지프리' 서비스를 실시했다. 서비스대상  
은 G90을 비롯해 'G80', 'G70' 등의 제네  
시스 브랜드 차종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가의 브랜드 일 수록 성능이 좋은 수입  
산 타이어를 많이 사용한다"며 "승차감,  
마찰력, 수명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국내  
산 타이어가 수입산에 비해 못 미치는 부  
분이 많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U+아이돌 Live' 앱서 JYP연습생 뽑는다

LG유플러스-JYP

연습생 공채 15기 오디션 진행

LG유플러스는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3일부터 'U+아이돌Live와 함께  
하는 JYP 연습생 공채 15기 오디션'을 진  
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오디션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원자가 'U+아이돌Live' 애플리케이션  
(앱) 내에 있는 공채 15기 오디션 지원 페  
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사전  
접수가 가능하다. 또 진행 날짜 및 시간,  
본선 진출자 발표 등 오디션과 관련된 주  
요 정보도 U+아이돌Live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오디션에는 U+아이돌Li  
ve 앱 사용자들을 위한 '인기 투표'가 포  
함됐다. 선발 과정 중 예선 통과자들의 오  
디션 영상을 활용해 U+아이돌Live 앱에  
서 단독으로 인기투표가 진행된다.

U+아이돌Live 앱 이용자들은 JYP 연  
습생 공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인기상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U+아이돌Liv  
e 사용자들은 이번 JYP 공채 오디션의 모



모델이 LG유플러스의 'U+아이돌Live와 함께하  
는 JYP 연습생 공채 15기 오디션'을 소개하고 있  
다.

/LG유플러스

든 과정 및 결과를 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인기상도 뽑게 된다"며 "고  
객들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고자 JYP 엔터테인먼트  
와 함께 이번 오디션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U+아이돌Live와 함께하는 JYP  
연습생 공채 15기 오디션은 1월 초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서울 5개 지역  
에서 오프라인 예선이 진행된다. 1월 28일  
U+아이돌Live 앱에서 본선 진출자가 발  
표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성탄절 맞아 24시간 캐럴 특집 방영

KT스카이라이프 오디오채널

200·320번서 26일까지 제공

KT스카이라이프는 오디오 채널 쉐티  
오가 오는 26일까지 'Satio 크리스마스  
캐럴(채널 320번)', '스카이 울트라오디  
오 K-POP(채널 200번)'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24시간 특집 방영한다고 4일  
밝혔다.

'Satio 크리스마스 캐럴'(채널 320번)  
은 팝 아티스트들의 정통 캐럴, 편곡된 리  
믹스 캐럴, 장르별 캐럴 등 크리스마스 캐  
럴 방송을 24시간 내내 제공한다.

특집 채널에서는 빙 크로스비, 카펜  
터스 등 해외 유명 팝 아티스트들이 부  
르는 정통 캐럴을 CD음질로 감상할 수  
있다.

그 밖에 4K 오디오 채널인 '스카이 울  
트라오디오 K-POP(Sky Ultra Audio

K-POP, 채널 200번)에서는 크리스마스  
특별 스킨(UI)을 적용했다. 또 인기 가수  
캐럴 등의 케이팝을 앨범 재킷과 함께 감  
상할 수 있다.

스카이 울트라오디오는 기존 음원사  
이트, 유료방송에서 제공하는 192K 음  
질보다 2배 이상 뛰어난 음질(리얼 384  
K)을 구현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트랙 정보, 아티스트, 앨범 재킷, 악기  
정보 등 음원 정보를 초고화질(UHD)급  
화질로 함께 제공한다. 스카이라이프는  
CD클래식(채널 199번), K-POP(채널  
200번) 등 2개의 울트라오디오 채널을 제  
공하고 있다.

한편, 쉐티오(Satio)는 초고음질 4K 오  
디오 채널 '스카이 울트라오디오'를 누구  
나 체험해볼 수 있도록 서울 청담동 소재  
하이파이 클럽에서 별도의 체험관을 운  
영한다.

/김나인 기자

## 알짜배기 옵션에 2268만원... 가성비 甲

〈개소세 인하 적용가격〉



르노삼성 'SM6 프라임'

열선시트·전자식 룸미러 등  
선호도 높은 편의사양 탑재



르노삼성 SM6 프라임.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 10월 선보인  
SM6 프라임 모델이 국내 시장에서 호  
평을 받고 있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알  
짜배기 옵션을 적용하 반면 가격부담  
은 낮춰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췄기 때  
문이다.

이같은 장점 덕분에 SM6 프라임 모  
델은 지난달 544대 판매대 전월 대비  
6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SM6 2.0 프라임 SE 모델의 시승을 통  
해 차량의 매력을 분석해 봤다. 시승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안면도를 왕복  
하는 약 34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도  
심과 고속도로, 굽은 길이 많은 국도 등  
으로 구성돼 차량의 다양한 성능을 충  
분히 시험해 볼 수 있었다.

외모는 기존 모델과 차이를 느낄 수  
없다. 그러나 내부는 조금씩 변화를  
줬다.

파워트레인은 SM5에도 사용하고 있  
는 2.0 CVT II 엔진에 자트로사의 엑

스트로니 무단변속기(CVT)를 결합해  
최고출력 140마력과 최대토크 19.7kg·  
m의 힘을 낸다. 기존 가솔린 제품군인  
1.6 TCe의 터보엔진과 비교해 폭발력  
은 다소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풍부  
한 배기량을 바탕으로 조금 더 편안한  
주행감을 선사한다. 특히 R-EPS 스티  
어링 휠을 적용해 조향 느낌이 더욱 정  
교하게 향상됐다. 회전 구간에서 민첩  
함과 부드러운 무단변속기 조합은 주  
행 스트레스를 느끼기 쉬운 시내주행  
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정숙성은 기존 가솔린 모델을 넘어  
서는 수준급이다. SM6 프라임은 모든  
트림의 앞 유리에 열 차단 기능을 추가  
한 차음 윈드실드 글라스를 기본 적용  
한 덕분이다. 정지상태는 물론 급가속  
해도 차량 안으로 스며드는 소음은 크  
지 않았다.

실내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사  
양만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묻어났다.  
시승 모델인 SE 트림의 경우 운전석 파  
워 시트를 비롯해 뒷좌석 열선시트, 전  
자식 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 및  
스피드 리미터, 하이패스 기능을 담은  
전자식 룸미러, 좌우 독립 풀오토 에어  
컨, 레인 센싱 와이퍼, 매트트렁크, 열  
선 스티어링 휠 등을 기본 탑재했다. 시  
승을 마친 후 최종 연비는 13.4km/L로  
복합 공인 연비(11.4km/L)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옵션을 적용했지만 가격은  
2268만~2498만원(개소세 인하 적용가  
격)으로 책정했다. SM6 프라임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다. SM6 프라임은 중형  
세단 구매시 옵션 선택을 고민하는 소  
비자를 충족시키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제주항공

## 취항 12년6개월만에 탑승객 6천만명 돌파

제주항공이 지난 3일 기준으로 누적탑  
승객 6000만명을 달성했다.

4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누적탑승객  
6000만명 돌파는 지난 2006년 6월 취항  
이후 12년 6개월 만이다. 2018년까지 연  
평균 37%, 2016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 18% 수준의 높은 여객수송 성장률  
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항공은 취항이후 6년 11개월만인  
2012년 5월 누적탑승객 1000만명을 넘어  
섰으며 이후 2년 2개월만인 2014년 7월



제주항공 승무원들이 4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누적 탑승객 6000만 명 돌파를 자축하고 있다.

2000만명, 1년 6개월만인 2016년 1월 3000  
만명, 1년 1개월 만인 2017년 2월 4000만  
명, 11개월여 만인 2018년 2월 5000만명을  
달성한 데 이어 6000만명을 돌파할 때는  
10개월이 걸리는 등 1000만명 단위 돌파

기간을 빠르게 줄여가고 있다.  
6000만명의 누적탑승객 가운데 국내선  
탑승객은 3400만명으로 56.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제선 탑승객은 43.3%인  
2600만명으로 집계됐다.

/정연우 기자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see you @HYCU

HANYANG CYBER UNIVERSITY

# 한양의 사이버 캠퍼스

한양사이버대학교

## 1만 6,569명의 이유 있는 선택

### 최대

학생수(16,569명, 정보공시 기준 1위)

### 최고

브랜드 대상 및 장학 수혜

### 최초

사이버대학원/창업지원단 개소

### 최적

온-오프라인 전임교원 지도

한양이기에.

www.hycu.ac.kr

2019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2018.12.1(토)~2019.1.11(금)

문의 전화 02)2290-0082

한양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go.hycu.ac.kr

# SRI투자의 철학 “나쁜기업 걸러내는게 우선”

〈사회책임투자〉

국민연금, 책임투자 단계적 확대 착하지 않은 기업 투자제한 가능성 환경과과·부패 기업 투자 배제 등 네덜란드·노르웨이, 책임투자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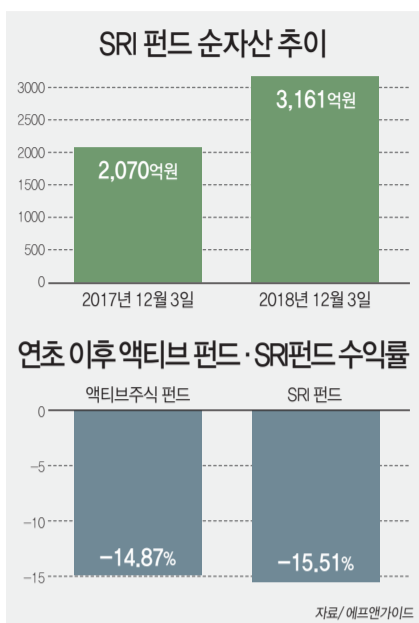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른바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SRI는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말한다.

다만 SRI 투자가 기존 지수보다도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의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나쁜 기업’을 선별해 내는 전략이 현실적인 사회책임투자라고 조언한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RI 펀드 설정액은 2016년 1231억원에서 현재 3161억원으로 늘어났다. 사회책임투자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2년 새 배 가까이 몸집을 불린 것이다.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을 통해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키우는 만큼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일부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6조9000억원 수준(위탁 자산의 11.4%)인데 향후 국내 주식 위탁 운용자산 중 책임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책임투자 규모는 1~2년 내 20%, 3년 내 40%, 5년 내 30%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운용전략실 산하의 책임투자팀을 분리해 책임투자실로 승격시키고 인원을 3배 늘렸다. 그만큼 투자전략에 큰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향후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기업의 재무평가 이외에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수익률 측면에서 ESG 투자 매력도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 투자로 유명한 도미니 임팩트(Domini Impact) 펀드의 수익률은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S&P500) 지수 수익률을 밑돌고 있다. 심지어 술, 도박, 카지노, 무기 등 ‘나쁜 기업’에 투자하는 바이스 펀드(Vice Fund)보다도 낮았다.

국내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다. 국내에 설정된 SRI 펀드(규모 10억원 이상)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5.51%로 같은 기간 국내 액티브 펀드 평균 수익률(-14.87%)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대대적인 조정보다 ESG 점수가 열등한 ‘나쁜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하는 책임투자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미 네덜란드, 노르웨이 연기금은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통한 책임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무기생산기업 ▲담배 생산기업 ▲환경과과 ▲아동, 노동 등 인권탄압 ▲온실가스 배출 ▲부패 등을 기준으로 투자대상 기업을 배제하는 방법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착한 기업으로 모두 채우는 것보다 수익률을 결정짓는 중심 종목은 운용역의 재량으로 구성하고, ESG에서 배제되는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투자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무기, 술, 환경과과, 인권위배 기업을 편출하는 전략이다. MSCI ESG는 환경, 인권 지배구조, 노동권리 등 여러 기준을 통해 개별기업의 ESG 등급(rating)을 1~10으로 평가하는 각 카테고리에서 평가등급이 1로 가장 낮은 기업을 편출하면 된다.

또 지배구조 등급이 하락한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지배구조원은 각 기업의 지배구조는 A~D로 분류한다. 지배구조원은 매년 지배구조 등급을 발표하는데 등급이 하락하면 편출 혹은 비중 축소, 등급이 상승하면 편입 혹은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KB증권

## ELS 등 6종 상품 공모

KB증권은 7일까지 S&P500지수와 H SCEI, 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해 최고 연 4.0%(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735호(3년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 등 총 6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 able ELS 735호(3인덱스 퀵 플러스 더블리자드 울트라 스텝다운형)는 S&P500지수와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 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노 낙인(No Knock-In Barrier)구조로 3년 만기에 1개월 및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4.0%(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하나금융투자

## 이자 6% DLS 상품 2종

하나금융투자는 7일까지 유가 변동성을 적극 활용한 리자드 DLS 등 파생결합 상품 총 2종을 모집한다. 두 가지 원유(WTI/BRENT)를 기초자산으로 연 6.00%를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DLS 3102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2년이고, 6개월마다 총 4차례의 상환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홍콩지수(HSCEI), 일본지수(NIKKEI225), 유럽지수(EuroSTOXX 50)를 기초자산으로 연 4.9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9166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DLS 3102회의 모집금액은 20억원이며, ELS9166회는 15억원을 한도로 모집한다. /김문호 기자

# 상장사 54곳 분기배당 9.1조... 삼성전자 7.2조 규모

## 상장기업 중간·분기배당 평가

코스피 36곳 전년비 4.5억원 ↑  
코스닥 18곳 배당금액 10% 늘어

올해 상장사들의 중간·분기 배당규모가 9조원을 넘어섰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총 54개사가 9조1000억원의 중간·분기 배당을 실시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36개사가 9조1000억원 규모로 중간·분기 배당을 했다.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삼성전자의 분기배당 규모가 전년 2조9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4

〈연도별 중간·분기배당 실시 현황〉

(단위: 개사, 회, 억원)

시장	구분	'14	'15	'16	'17 (A)	'18 (B)	증감(B-A)
코스닥	실시회사	11	16	18	21	18	3↓
	실시횟수	11	16	18	21	20	1↓
	배당금액	189	210	255	457	504	47
코스피	실시회사	27	26	23	30	36	6
	실시횟수	27	26	27	41	51	10
	배당금액	4,408	10,447	9,281	46,018	90,556	44,538
	삼성전자	755	1,489	1,416	28,968	72,138	43,170
삼성전자 외 배당금액		3,653	8,958	7,865	17,050	18,418	1,368

자료=금융감독원

조3000억원 가량 증가한 영향이 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8개사가 504억원

규모로 중간·분기배당을 실시했다. 회사 수는 전년 대비 줄었지만 배당금액은 10% 가량 늘었다.

/안상미 기자 smahni@

## 3분기 증권사 실적 23% 급감

금감원, 당기순이익 9576억원

증시침체에 증권사들의 실적이 대폭 악화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55개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957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3.1% 감소했다. 수수료 수익이 급감했고, 주식관련 이익도 감소폭이 컸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3분기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6.8%로 집계됐다.

3분기 중 전체 수수료수익은 2조157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0.3% 감소했다.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수탁수수료가 줄었고, 투자은행(IB) 관련 수수료도 감소했다.

자기매매이익은 1조417억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식관련

이익은 75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9.7% 감소한 반면 채권관련이익은 1조610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9% 늘었다.

전체 증권회사의 자산총액은 449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4% 증가했다. 부채총액은 전분기 대비 0.2% 늘어난 393조6000억원이다.

3분기 중 6개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5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5% 감소했다. 3분기 누적 ROE는 전년 대비 1.7%포인트 오른 4.7%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회사 순이익이 주식시장 침체와 대내외 경기불안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향후에도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증시 불안 요인에 따라 수익성 및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소지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전남 영암군 금정면 안노리 산183번지
2. 분묘 기수: 평장된 무연분묘 2기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취득후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 간
5. 안치장소: 곡성 청계원 나.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명서류(족보, 계적 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십시오.
8.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공고인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16 박 태 흥



# 미스터피자 ‘MP그룹’의 추락 ‘갑질 논란’ 결국 상폐 위기로



안전으로부터 ‘의견거절’ 받기도  
150억대 횡령·배임으로 실질심사  
개선안 실천해 빠르게 정상 회복중

토종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 9년 만에 증시 퇴출 위기에 처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 논란 이후 경영난을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탓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15명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위가 이번 기업심사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MP그룹은 코스닥 상장 9년 만에 퇴출이 확정된다.

MP그룹은 1990년 9월 설립된 미스터피자 운영사다. 일본에서 출발한 브랜드지만 국내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결과 한국 법인이 일본 본사를 역으로 사들였

고, 2000년대 후반에는 국내 피자업계 1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2009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매출이 역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업계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2016년에는 정 전 회장이 경비원 폭행 혐의로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 친인척 부당 지원 등이 문제가 됐고, 이는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MP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영업손실을 기록해왔다. 올해 반기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인 안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기도 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MP그룹이 제출한 자료 등이 부실해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또 현행 코스닥 퇴출 요건에 따르면 상장사에 별도 재무제표 기준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면 관리종목 지정 등을 거쳐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정 전 회장의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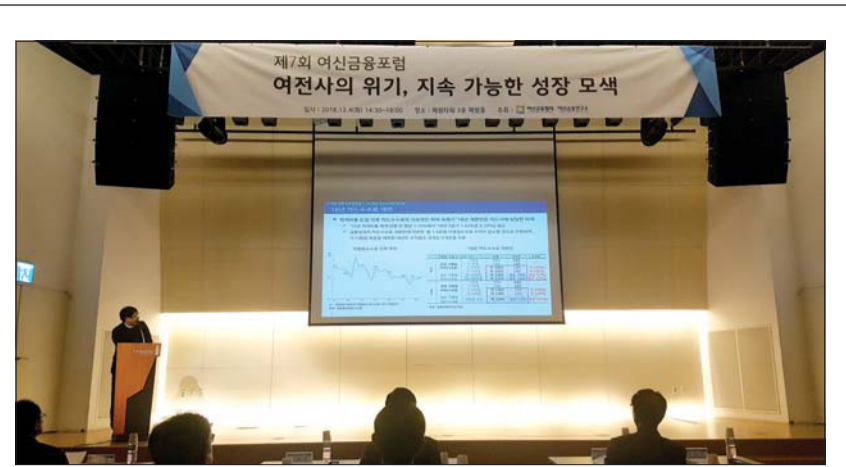
간은 지난 10월에 종료됐으나 MP그룹 측이 실질심사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고,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이달 3일까지로 연장했다.

MP그룹은 “지난해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다방면의 개선안을 빠짐없이 실천했다”며 “이에 힘입어 MP그룹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110억 원(연결 -3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2억 원(연결 66억 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에도 기업심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할 데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스닥시장위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사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중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확정하면 MP그룹은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되는 기업의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7거래일 간의 매매 기간을 주는 제도다. 정리매매에 들어간 주식은 3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해 거래하며 가격제한폭도 두지 않는다.

/손업기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4일 여신금융포럼에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으로 3년간 소비자혜택 9000억 ↓”

### 제7회 여신금융포럼

상품 탑재 서비스 삭제·연회비 인상  
카드사 공동플랫폼 수익배분해

올해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3년간 카드회원 혜택이 9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와 여신금융연구소는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여전사의 위기, 지속가능한 성장모색’이란 주제로 ‘제7회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카드사의 영업환경 악화과 향후 성장방향’을 발표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위험 요인으로 ▲2018 카드수수료 재산정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조달비용 및 대손비용 증가를 지적했다.

특히 윤 연구위원은 카드수수료 재산정으로 인해 개편 초기에는 상품에 탑재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이후로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까지 점진적으로 없어지면서 연회비도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내년에는 카드회원의 혜택 감소분이 1000억원,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2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손실분은 내년엔 7000억원, 2020년 5000억원 2021년 3000억원 등으로 3년간 1조 5000억원의 손실을 예측했다. 다만 그는 “카드회원 혜택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단순히 계산된 값으로, 향후 카드사들의 대응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위원은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나오면서 지급결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매출액 30억원 미만의 가맹점의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이 사라지게 됐다”며 “제로페이의 QR코드 방식이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서 모두 플라스틱 카드보다 경쟁력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위원은 정부의 적격비용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가맹점의 93%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면서 적격비용의 유지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정치적 이슈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3년이라는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려 카드사의 수익이 악화될 경우 적격비용체계에 대한 카드사의 거부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의 문제가 있는 QR코드보다 편의성과 보안성이 확인된 근거리 무선통신(NFC)결제방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카드사가 공동으로 빅데이터플랫폼을 개발해 데이터 제공규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진퇴양난’ 시중銀의 고민

# 금리 올리고 싶지만... 역풍 맞을까 전전긍긍

정기예금에 돈 몰려 조달비 증가  
경기 지표 부진으로 하방압력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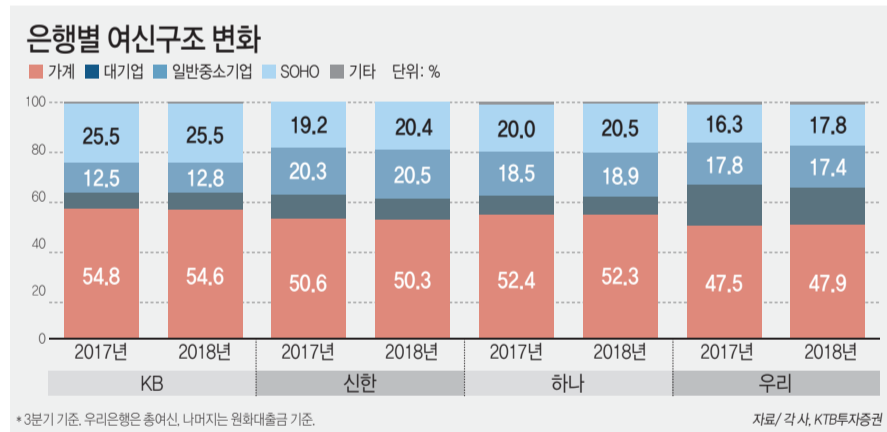
“2019년은 비용(Funding cost)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금리가 높은 상대적으로 위험 차주의 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A은행 B부행장) “(기준금리 인상이) 예전 같으면 어께춤이라도 쳤을 것이다. 금융 포용이다 뭐다 해서 새는 돈은 많은데 경쟁(인터넷은행)은 치열해지고, 인건비는 갈수록 늘고 있어 걱정이다.” (B은행 C 임원)

모두가 금리(대출)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진퇴양난’의 형국에 빠졌다.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설비투자를 이끌었던 반도체 호황이 마무리되고 둔화 기조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실업률은 3.5% (10월)로, 2005년 10월 이후 가장 높다. 반면 기준금리가 오르고,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으로만 돈이 몰려 자금 조달 비용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핵심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정기예금으로 몰리고 있다.

10월까지 은행계정 수신은 76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은 각각 2040억원, 10조원 감소했다. 반면, 정기예금은 증가규모는 83조8000억원에 달한다.

핵심예금 비중도 지난 12월 39.8%에서 37.4%까지 하락한 반면 정기예금 비중은 38.1%에서 41.4%로 높아졌다. 10월 기준 핵심예금 금리는 0.27~0.4%인 반면 정기



예금 금리는 1.9%에 달한다. 핵심예금 비중감소는 조달비용 상승속도를 부추긴다. KTB투자증권 김한이 연구원은 “시금고 유치, 급여 및 결제계좌를 확보할 수 있는 협약대출 확대 등 전략적 노력이 수반되고 있으나 은행별 수신구조를 보면 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지원가성 수신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를 올리면 된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시중은행들의 고민은 깊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9·13 부동산대책 이후 시중금리가 한차례 상승하며 1회 금리인상 기대감을 이미 반영했다. 각종 경기지표가 부진해 경기 하방압력이 크다. 금리를 올렸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 올해 들어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비)은 5~9월 동안 다섯달 연속 마이너스(-)다. 6월부터 9월까지는 10%대의 감소율을 나타낼 정도로 부진의 폭이 깊었다. 10월 들어 9.4% 증가했지만 승용차 수입이 이례적으로 20% 이상 늘어난 영향이 있어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하

기 힘들다. 소매판매액 증가율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시장의 부진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우리나라의 55~64세(중장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 포인트 오른 2.9%였다. 같은 기간 미국(2.7%)의 실업률보다 0.2% 포인트 높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 시중금리에 연동되므로 시중금리가 상승하지 못하면 그만큼 은행 대출금리 상승도 저해된다”면서 “대출금리가 오르더라도 신규 취급 금리보다는 상환효과에 의한 완만한 잔액기준 금리의 상승을 예상한다”고 걱정했다.

가산금리 상승 여력도 제한적이다. 3, 4분기 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중소기업대출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강화됐다.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눌러 차주를 확보하기보다는 위험이 낮은 우량차주 및 안전자산 중심의 대출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김문호 기자 kmh@

## 우리銀, 퇴직연금 DB·DC형 수수료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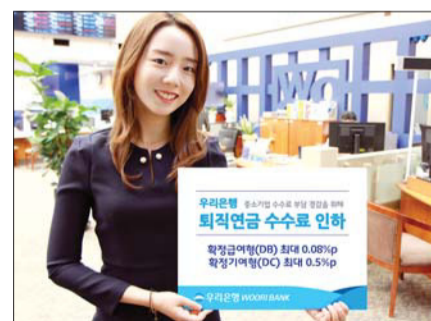
최대 DB 0.08%p·DC 0.05%p 적용

우리은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중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확정급여형(DB)의 수수료를 최대 0.08%포인트,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를 최대 0.05%포인트 인하했다.

확정급여형(DB)은 적립자산평가액이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일 경우 최대 0.08%포인트 인하하는 등 3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일 경우 평가액 규모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 0.25~0.35%에서 연 0.19~0.33%로 0.02%~0.08%포인트 내렸다.

확정기여형(DC)은 적립자산평가액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 0.30~0.35%에서 연 0.27%~0.32%로 인하해 0.03%포인트를 우대한다. 확정기여형(DC)의 자산관리



수수료는 평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0.02%포인트 인하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DC를 가입한 사업장 중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장도 자산관리수수료 0.02%포인트를 감면 받는다. 신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인하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 기간에 맞춰 일괄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내로남낙... 노조 몽니에 중기중앙회 부회장 인선 난항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낙하산)

(상근)

중소 등 관련 공직 30년 생활  
10개월 국회 경력 두고 '생떼'  
노조 "취임 반대투쟁 총력"

경제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인선을 놓고 노동조합이 막판까지 생떼를 쓰고 있다.

상근부회장에 내정된 인물이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 부처와 여당간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10개월 남짓 국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한 경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중기중앙회 노조가 '정치권 낙하산'으로 간주,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현 더불어민주당 서승원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상근부회장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현재 중기중앙회 이사는 57명으로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통과된다.

이사회에서 상근부회장으로 결정되면 중기중앙회장이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임명하게 된다.

서승원 수석전문위원은 행시 31회로 1988년 공직에 입문한 뒤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와 상공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1998년부터 현 중소벤처기업부 전신인 중소기업청에서 줄곧 근무했다.

중기청에선 정책총괄과장, 행정법무담당관, 벤처진흥과장,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창업벤처국장,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기획조정관 등을 두루 맡았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새롭게 출범한 중기부에서 정책기획관을 역임하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중기중앙회가 4개월 가량 공석인 상근부회장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중기부 출신인 서승원 수석이 물망에 올랐고, 내정자로 결정하면서 노조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임기가 3년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비상근인 회장을 대신해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계 현안을 해결하고 주무부처 등과 소통하는 등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때문에 직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신영선 전 상근부회장을 제외하고는 주로 1급인 중기청 차장이 맡아왔다.

중기중앙회 노조가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은 서 수석을 '정치권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 경력이 월등히 많다고는 하지만 이미 퇴직해 당으로 자리를 옮겼으면 정당 당직자로 봐야한다. 공공기관도 아닌 순수 민간경제단체에 정당 당직자 출신이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울러 공무원 재직 시절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조치를 받은 인물을 놓고 중기중앙회의 최고결기구인 이사회가 거수기 노릇만 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사회 당일까지도 집회 등을 통해 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임명을 결정할 경우엔 향후 추가 대응방안도 고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노조는 앞서서도 서 수석 임명 강행을 민간 경제단체 장악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낙하산 인사로 판단하고 취임 반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주변과 중기부 안팎에선 서 수석을 정당 인사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에는 예산, 산업정책, 환경, 노동 등 각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이나 수석전문위원이 있다. 특히 여당의 경우엔 해당 부처로부터 수혈받은 수석전문위원이 부처와 여당간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이나 조율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해당 부처에 러브콜은 국회 정책위원회가 하고 부처가 내부 신청 등을 받아 적임자를 보내는 식이다. 물론 공무원 출신인 수석전문위원은 직을 국회에 두고, 월급도 국회로부터 받는다. 지난해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중기부의 경우엔 서 수석이 첫 타자였다.

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서 수석이 지금은 당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옮긴지 1년이 되지 않았고, 게다가 중소벤처분야에서 20년을 포함해 30년 가까이 공직에 있던 인물을 여당 당직자로 간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편의점 옆 편의점' 불허

공정위

50~100m 내 신규 출점 제한  
유동인구 많은 밀집지역 예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거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이 이행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50~100m 이내에 편의점을 새로 열지 못하도록 거리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출점·운영·폐업에 걸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율 규약은 전국 편의점의 96%에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율 규약 제정안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소회의를 통해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자율 규약에는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업에 걸친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했다.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다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른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또한 규약 참여사는 정보공개서에 개별 출점기준을 담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경쟁사거리 50~100m 출점 제한 거리를 두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이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

출점 제한은 지난 1994년 80m 제한으로 시행된 바 있고, 2000년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폐기됐다. 이번 자율 규약으로 경쟁사 근접 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업체들은 가맹 희망자에게는 경쟁브

랜드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운영 단계에서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부당한 영업시간 금지도 규약에 담겼다.

폐점 단계에서는 '희망폐업'을 도입한다.

자율규약은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한다. 이에 국내 편의점 96%(3만8000개)에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은 업계 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자율규약 제정은 정부의 시장규제수단이 아닌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다른 업종의 가맹분야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 중소 만난 成 장관 "대-중소 수평적 협력" 강조

(성윤모 산업부)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등 논의  
중기중앙회 "제조업 혁신 시급"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회장단 27명과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의 기업 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업 DNA가 친환경, 스마트화로 획기적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구조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성장사다리 강화와 관련,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 지원정책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규, 세제 등을 보완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중소기업이 창업후 혁신으로 중견기업을 거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나가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제조업 혁신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

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와 주력산업의 침체, 노동이슈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제조 혁신으로 극복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 주요국이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 ▲중국제조 2025 ▲일본재흥전략 2016 등 강력한 제조업 부흥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정책적 협업가능 부족과 중장기 플랜 미흡으로 성장동력인 제조업이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제조업 현실에 대한 냉

정한 평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아울러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법적근거 마련 ▲뿌리산업 공정혁신 및 인력양성 지원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확대 ▲미중 무역분쟁 영향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17건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성 장관은 지난달 12일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무역협회(11.22), 중견기업연합회(11.26), 경영자총협회(11.28) 등 주요 경제단체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삼양그룹 임원 인사... 윤재엽·엄태웅 사장 승진

삼양그룹은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윤재엽 삼양홀딩스 부사장과 엄태웅 삼양바이오팜 대표가 각각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모두 16명의 임원 승진이 이뤄졌다.

윤 신임 사장은 1984년 삼양사 입사 후 재경실 재무팀장, 회계팀장을 거쳐 2007

년 상무로 선임됐다. 2011년 삼양홀딩스 부사장에 이어 이번에 삼양홀딩스 사장이 됐다.

엄 신임 사장은 1983년 삼양제비스에 들어왔고, 삼양제비스 기획부장, 삼양사 식품연구소장 등을 지내고 2010년 삼양사 경영기획실 PMO팀장으로 임원직을 맡았다. 2014년에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재엽 삼양홀딩스 사장 엄태웅 삼양바이오팜 사장

삼양바이오팜 대표이사를 맡아오다 이번에 사장 자리에 올랐다. /박인웅 기자

# 안경은 으뜸50안경에서 하자!



## Event

### 수입 브랜드 누진다초점 신제품 할인 행사

#### 엑셀라이트 누진다초점

① 아시오 플러스 1.50 중굴절  
~~300,000원~~ → **99,000원**

② 아시오 프로 1.50 중굴절  
~~400,000원~~ → **129,000원**

## Event

### 으뜸 50안경 안경렌즈 대폭 가격인하

1.56 중굴절 ~~6,000원~~ → **4,000원**

1.56 중굴절 비구면 ~~10,000원~~ → **6,000원**

1.60 고굴절 ~~13,000원~~ → **9,000원**

1.60 고굴절 비구면 ~~17,000원~~ → **10,000원**

1.67 초고굴절 비구면 ~~26,000원~~ → **20,000원**

## Event

### 오클리 선글라스 창고대방출 특별행사



① **OAKLEY** 레이다락 패스  
RADARLOCK PATH

~~365,000~~ → **146,000원**  
(균일 판매가)



② **OAKLEY** 홀브룩  
HOLBROOK

~~240,000~~ → **99,000원**  
(균일 판매가)

\* 정품 품질 보증

# “스마트 홈 위해서라면”... IT, 가구·건설등 전방위 제휴

##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타사 제품 탑재 가능

## LG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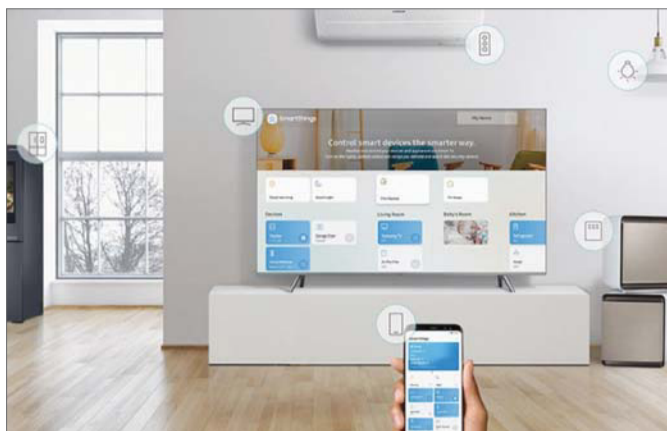
伊 브랜드 나무찌와 협력, 美 공략

## 카카오

포스코와 아파트 설비 제어 선택

## 샤오미

이케아 전제품 IoT 플랫폼 연동



삼성전자의 통합 IoT 플랫폼 스마트싱스로 집안의 기기들을 제어한다. /삼성전자



샤오미 레이 쥘 최고경영자(CEO)가 MIDC 2018에서 발표하고 있다. /샤오미



LG전자가 지난 10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포인트에서 열리는 '2018 추계 하이포인트마켓'에서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나무찌와 스마트홈 솔루션 '스마트 리빙 컨셉'을 선보였다. 고객이 LG전자 인공지능 스피커나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매직 리모컨에 “책 보고 싶어”라고 하면 TV가 꺼지고 소파가 독서에 적합한 각도로 움직이면서 조명이 밝아진다. /LG전자

집안에서 “책 보고 싶어”라고 말하면 TV가 꺼지고 소파가 독서에 적합한 각도로 움직이면서 조명이 밝아진다. 외부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에어컨·TV 등을 켜고 끄고, 가스 밸브를 잠글 수 있다.

집안에서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대가 다가왔다. IT기업들은 자사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타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집안에 있는 수많은 업체의 제품들과 연동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협업이 필수로 여겨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통합 IoT(사물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로 스마트홈을 구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TV, 냉장고, 노트북, 의료관리기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는 타사 제품도 스마트싱스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의석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삼성전자 ‘빅스비 개발자 데이’에서 “다른 회사 제품도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를 연동하거나 빅스비

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나무찌와 협력해 미국 스마트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LG전자와 나무찌는 지난 10월 세계 최대 규모 가구박람회 ‘2018 추계 하이포인트마켓’에서 스마트홈 솔루션을 선보였다.

고객이 나무찌 소파에 앉아 인공지능 스피커에 “TV 볼래”라고 말하면, LG전자의 TV가 자동으로 켜지고 소파의 등받이가 뒤로 눕히면서 실내조명의 밝기는 낮아지고 커튼이 자동으로 닫히는 등 주변 환경이 TV 시청에 최적화된다. 또, 매직 리모컨에 “잠만 정지해줘”라고 말하면, TV가 일시정지되면서 커튼이 열리고 소파는 고객이 일어나기 쉬운 각도로 세워진다.

LG전자는 나무찌와 스마트 리빙 컨셉 외에도 스마트홈 기술 개발, 공동 마케팅 등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달 8일 스마트홈 플랫폼 ‘카카오홈’을 출시하고 IoT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i가 적용된 카카오홈 전용앱을 통해 사용

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집안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집 안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헤이카카오, 안방 조명 켜줘” 한마디로 쉽게 조명을 켤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공기청정기 켜줘”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장소에 상관없이 기기 조정이 가능하다. 자동차에서도 카카오톡을 통해 집안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카카오는 스마트홈 구현을 위해 건설사, 전자 기기 제조사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IoT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미 포스코 건설 함께 조명, 난방, 엘리베이터 등 각종 아파트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단지를 선보였다. 적용되는 아파트는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GS건설, IoT 전문기업 코맥스 등과의 제휴를 통해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 전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필립스 등 조명 기기, 코웨이 공기청정기 등 주요 생활 가전업체, 가습기, 스마트플러그, 자동 블라인드 등을 생산하는 미로, 브런트, 다윈DNS, 나란, 어웨어와 같은 스타트업들과도 협력한다.

이외에도 삼성SDS, 청호나이스, 한샘, 아이오, 고릴, 맬로랩, HK 네트워크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도 서비스 연동을 준비 중에 있다.

중국 IT기업 샤오미는 스웨덴 가구 업체 이케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중국 내 이케아의 스마트 전구 전 제품이 샤오미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과 연동된다. 이케아가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샤오미는 현재까지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제외한 1억3000만개 이상의 스마트 기기를 연결했으며, 9월 기준으로 매일 전 세계 200여개 국가 및 지역에 위치한 2000만개 이상의 제품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억개 이상의 기기가 샤오미의 AI 음성인식 비서 샤오미아이로 연결돼 있고, 샤오미아이의 월간 사용자 수는 3400만을 넘어섰다.

샤오미는 이케아와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홈 사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샤오미는



CJ대한통운은 지난 3일 경북 안동에 소재한 경북도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실버택배 거점 현판식을 가졌다.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왼쪽에서 5번째),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왼쪽 6번째) 및 관계자들이 현판식 종료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 CJ대한통운-경상북도

### 노인일자리 창출·지역소득 증대 ‘맞손’

CJ대한통운과 경상북도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CJ대한통운은 지난 3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실버종합물류, 안동시니어클럽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실버택배 거점 현판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동룡 안동시 부시장, 이근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지역본부장, 김보근 실버종합물류 이사, 정재현 안동시니어클럽 관장, 실버 배송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실버택배란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등에 마련된 거점에 물량을 실

고 오면 인근에 사는 노인들이 친환경 전동 카트로 배송하는 사업이다. 건강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친환경 장비를 활용해 탄소저감 효과도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청 실버택배는 도청 및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교육청 등 경북도청 신도시 내 주요 관공서에 배송될 택배 물량을 별도로 분류해 청사 내 마련된 작업장까지 전달하면 실버 배송원들이 세부 구역별로 재분류해 고객에게 배송하는 구조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CJ대한통운, 경북도청 및 유관기관들은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실버택배 모델의 핵심 요소인 택배 물량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청소기 대세는 ‘무선’... 2년만에 매출 4배

무선청소기 매출, 일반청소기 넘어  
다이슨·LG전자, 국내시장 양분

무선청소기가 유선청소기의 판매량을 뛰어넘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무선청소기 등장 초기엔 유선 청소기에 비해 비싼 가격과 흡입력이 약하다는 이유 탓에 판매량이 높지 않았지만 기능이 거듭 개선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무선청소기를 선택하고 있다. 청소할 때의 편리함과 시간 절약을 중시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서 132만 4000대의 무선청소기가 팔렸다. 국내 청소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7%에 달한다. 2016년 같은 기간 59만7000대(27.1%), 2017년 73만1000대(37.38%)였던 상황에서 꾸준히 성장했다.

금액면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무선청소기만 607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전체 청소기 시장의 76.9% 수준이다. 2016년 판매된 금액은 1593억원(36.86%), 2017년 2782억원(53.3%)이었다. 이미 지난해 무선청소기 매출이 일반청소기를 넘어섰고, 2년 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성장했다.

무선청소기의 성장세에 발맞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도 뜨겁다. 스웨덴 가전기업 일렉트로룩스가 2002년 일렉트로룩스 코리아를 설립했고 2004년 첫 무선청소기 에르고라피도를 국내에



출시했다. 이후 11년동안 하중심(下中心)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1위를 유지했다.

지난 8월 문상영 일렉트로룩스 코리아 대표는 신제품 무선청소기 퓨어 F9 출시 간담회에서 “지난 11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한국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1등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무선청소기 시장은 2008년 영국 기업 다이슨이 국내에 진출하며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다. 다이슨은 지난 9월 새롭게 개발한 모터를 장착한 싸이클론 V10 카본 파이버 무선청소기를 출시했다.

현재는 다이슨과 LG전자가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LG전자는 작년 7월 상중심(上中心)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역대 최단기간인 3주 만에 1만대가 팔렸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해 LG전자는 지난 10월 코드제로 A9에 물걸레 기능을 더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무선청소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무선 물걸레 청소기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업계는 국내 물걸레 청소기 시장이 2년 전에 비해 두 배 가량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파워건 2018년형 신제품을 출시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구서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 코디스호텔에서 한-뉴질랜드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과학기술·방산 협력 확대 軍물자협력 등 조속 추진”

文 대통령, 뉴질랜드 국민방문

“경험과 기술 더해 남극연구 성과 기대  
韓 국민, 뉴질랜드 출입국 편의 높여”

한국과 뉴질랜드가 신남방정책, 신태평양정책을 통해 아세안·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연내에 유효하다고 재차 확인하면서도 시기보단 답방을 통해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느냐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국과 뉴질랜드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와 경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뉴질랜드의 신태평양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서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를 국민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클랜드 시내 코디스 호텔에서 저신다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개방주의·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무역질서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서로 강점을 가진 뉴질랜드의 농업 분야와 한국의 건설 분야에 상호 투자·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내년 한국기업이 건조한 뉴질랜드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 호 진수식이 열린다”며 “우리는 진수식을 환영하며 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군용물자협력 약정서 체결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극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남극조약 최초 서명국인 뉴질랜드의 오랜 경험과 한국의 우수한 연구기술이 결합해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중요한 바이오·헬스케어·ICT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 국민 간 교류를 더욱 넓혀가기로 했다”며 “뉴질랜드는 이번 국민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자동여권심사(eGate) 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매우 고무인 일”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또 “우리는 워킹홀리데이, 농·축산업 훈련비자,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전문직 비자 등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 방안도 협의했다”며 “아던 총리님은 학생 시절 방한해 한국을 보다 잘 알게 됐다. 양국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더 자주 방문·교류해 서로를 이해·공감하는 게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뉴질랜드의 젊은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차세대 지도자 간 교류’ 프로그램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에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서을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연내나 아니냐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답방 계기에 제가 직접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질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더욱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던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뉴질랜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도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로 이어진 5박 8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농식품부, 무·배추 ‘수급안정’ 4.8만t 수매비축

가을배추 생산량 평년대비 6.1% 줄어

정부가 월동기 배추와 무의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 3000톤, 무 1만8000톤을 수매비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배추·무 가격 하락세에 대응하고, 겨울철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무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배추는 전반적으로 수급 여건이 양호하나, 무는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배추의 경우, 가을배추 생산량은 평년 대비 6.1% 감소하나, 월동배추 생산량은 평년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무의 경우, 가을무는 평년 대비 2.1%, 월

동무는 6.1%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추의 경우, 겨울철 이상기상 가능성을 감안해 3000톤 수준을 수매비축할 예정이며, 과잉 기조인 무의 경우 초과 공급 예상량을 단계적으로 시장격리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킬 계획이다.

우선 12월 초과 공급 예상량 1만8000톤에 대해 4000톤 수준을 수매비축하는 한편,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출하정지 7000톤, 지자체(제주도) 자체 산지폐기 7000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상 악화에 대비해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기술지도를 적극 추진해 월동기 배추·무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 소·혁·공 3대 경제정책 유지 최저임금 등 속도조절 필요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년 하반기, 소득주도성장 효과 나타날 것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늘리는 방안 검토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꿀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경제정책 기조의 축은 그대로 가야 한다”며 “다만, 소득주도성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포함해 몇 개 정책에 대해 시장의 우려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파급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상승률과 금액, 산업범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방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지표와 지불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고시하는 절차로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에 대해 홍 후보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지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문에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해 왔지만 소득과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은 단계적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과 관련해서는 “탄력 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제는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마무리가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보유세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 방향도 보유세를 강화해 가는 쪽이므로 조세체계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홍 후보자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의리가 없다”며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작년 7월 홍 후보자는 언론에 캐비닛 문건 일부를 제임 시절 작성했다고 확인해줬다”며 “그걸 확인해줄 때 파급효과를 생각해봤는가. 과거 상사와 동료에게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후보자가 그것을 확인해주면서 새로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었고, 같이 일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확인을 소극적으로 해줄 수 있었는데 후보자는 했다. 진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동료로서 의리가 없다”고 비난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 연내 마무리

대법원 “징계피청구인 심의 대부분 종결”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연내 마무리한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4일 “전날 징계피청구인 13명의 법관에 대한 3차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징계피청구인에 대해 심의를 종결했다”며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 심의 대상이 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이다.

징계위는 심의를 마친 사건의 징계결정과 심의를 속행한 사건의 징계심·결정을 위한 기일을 이달 중순께 진행해 가급적 올해 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과 8월 20일 1·2차 심의 기일을 진행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봉급의 1/3 이하를



서울 법원종합청사. /이병중 기자

줄인다.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만 구성된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인 위원장, 위원 6명과 예비위원 4명을 둔다. 징계 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해 서면이나 구술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나 학식, 경험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도 할 수 있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사법농단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이 ‘찬성’으로 결론 난 상태다.

/이병중 기자 jaker@

# ‘역대급 불수능’... 국어 최고 난이도, 영어 1등급 반토막

## 대학가 소식



국민대 이호선 총무처장(오른쪽)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우수기관’ 선정 감사패 수여식에서 신동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복지사업과 기법팀장을 하고 있다. /국민대

### 국민대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우수기관으로 감사패 받아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으로부터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 지난 3일 오후 교내 본부관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으로 성북구 내 600여 저소득 가정과 노인세대에 매년 12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구자관 (주)삼구아이앤씨 대표

### 서강대 경제대학원

#### ‘2018 서강경제대상’에 김경환 교수·구자관 대표

서강대학교는 경제대학원과 경제대학원 총동문회가 ‘2018서강경제대상’ 수상자로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경환 교수와 (주)삼구아이앤씨 구자관 대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강경제대상은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교수와 국가 경제에 기여한 사회 경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 8회째를 맞는다.

김 교수는 도시경제학 및 공공재정책 전문가로 미국 시라큐스대 조교수를 거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구 대표는 50년 동안 국내 최대 건물 종합관리 및 생산도급 등 다양한 분야의 아웃소싱 회사로 성장시켰다.

### 동국대 경산스님 일대기 출간

‘청정 율사 경산 스님의 삶과 가르침’

동국대학교는 교내 출판부가 ‘청정 율사 경산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책은 평생 불교 중흥의 원력을 실천하고 정화불사의 완성과 종단 화합의 성취를 위해 앞장서며 수행자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경산 스님의 일대기를 정리했다. /한용수 기자

## 평가원, 수능 채점 분석

### 국어 표준점수 전년 比 16점 상승 수학 최고점 가형 133·나형 139점 절대평가 영어 1등급자 비율 5.30%

지난달 치러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어는 2005년 이후 가장 어려웠다. 지난해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1등급자는 작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어렵게 출제돼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상승

4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19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 수학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과 1,2등급 구분점수(등급컷) 모두 전년 수능보다 높아졌다.

표준점수란 수험생의 상대적인 위치나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아진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해당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표준점수다.

국어가가 가장 어려웠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전년 수능(134점)보다 무려 16점이나 높아졌다. 만점자 비율도 0.03%(148명)로 역대 최저치(2011학년도 0.06%)를 갱신했다. 이는 올해 두 차례 모의평가보다 높고 이 중 최강 난이도로 평가받았던 6월모평(표준점수 최고점 140점)보다 높다.

국어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등급컷)는 132점이었고 1등급 비율은 4.68%(2만4723명)로 나타났다. 2등급컷은 125점, 3등급컷은 117점, 4등급컷은 107점, 5등급컷은 95점 등

등급	국어		수학 가형		나형		원정수	영어 절대평가
	표준점수	비율(%)	표준점수	비율(%)	표준점수	비율(%)		
1	132	4.68	126	6.33	130	5.98	90	5.3
2	125	6.39	123	6.62	127	5.11	80	14.34
3	117	12.76	117	10.8	119	14.64	70	18.51
4	107	17.46	110	17.42	108	15.36	60	20.91
5	95	19.1	99	19.27	92	19.17	50	16.53
6	84	16.7	84	17.14	80	16.94	40	10.67
7	73	12.29	69	11.76	74	11.93	30	7.43
8	63	7.51	60	7.12	71	7.4	20	4.59
9	63미만	3.11	60미만	3.53	71미만	3.46	20미만	1.73

으로 집계됐다.

수학 역시 어려웠다. 수학기형 표준점수 최고점은 133점(전년 130점), 수능나형은 139점(전년 135점)으로 전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고, 특히 인문계열 수험생이 치른 수능나형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수학 만점자 비율은 수학기형 0.39%(655명), 수학나형 0.24%(810명)였다. 수학은 매우 어려웠던 올해 6월 모평(가형 145점, 나형 141점)보다는 다소 쉬웠다. 수학기형 1등급컷은 126점(6.33%, 1만 675명), 수학나형 1등급컷은 130점(5.98%, 2만368명)이었다. 수학기형 2등급컷(123점), 3등급컷(117점), 4등급컷(110점), 5등급컷(99점) 등이고, 수학나형 2등급컷(127점), 3등급컷(119점), 4등급컷(108점), 5등급컷(92점)으로 집계됐다.

#### ◆영어 “상대평가보다 어려웠다”

영어는 지난해 1등급자만 5만명이 넘었지만 올해 1등급자 비율이 5.30%(2만 7942명)로 전년(10.03%)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어려웠다. 특히 영어는 상대평가 시절보다 더 어렵게 출제됐다. 역대 수능 영어 원점수 90점 이상 비율로 절대평가 1등급을 추정해보면, 2006학년도 4.7%, 2011학년도 4.3%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상대평가 방식 비율로 봐도 2010학년도(5.31%), 2012학년도(6.53%)보다 1등급자 비율이 적었다. 영어 등급별 비율과 인원은 2등급(14.34%, 7만 5565명), 3등급(18.51%, 9만 7577명), 4등급(20.91%, 11만 17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절대평가 한국사 1등급자는 올해 36.52%로 전년도(12.8%)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고, 이외 영역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과목에 따라 사회탐구(63~67점), 과학탐구(64~67점), 직업탐구(63~72점), 제2외국어/한문(64~80점)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 표준점수 최고점은 경제과목이 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과윤리, 세계지리가 각 63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목간 난이도 유불리를 조정하는 변환 표준점수 조정시 경제에서는 2~3점 내외 하락이 예상되고, 생활과윤리와 세계지리는 2~3점 내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탐구 표준점수 최고점은 생명과학1이 72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리1, 물리2가 각 66점으로 낮았다. 과탐 변환 표준점수 환산시 생명과학1은 2

~3점 내외로 하락하고, 물리1, 물리2는 2~3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올해 수능시험이 고난도로 출제된데다 과목별 난이도 편차도 커 주로 수능 100%로 신입생을 뽑는 정시모집 합격 예측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영어와 국어의 경우 당장 내년도 입시를 치를 고2 학생의 경우 어떻게 출제될지 예상하기 어려워 불안감이 커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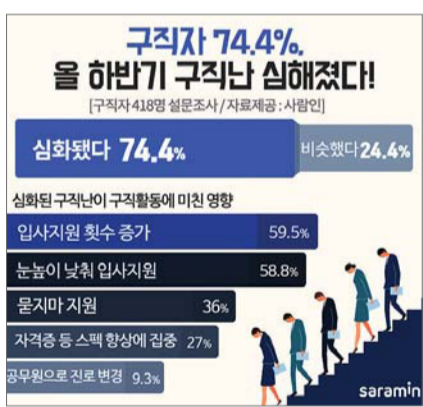
특히 국어가 어려워 주로 수학기형을 치른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국어 성적이 낮을 경우 수학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구조적으로 만회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국어와 수학기형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가 17점차로 자연계열 수험생들에게는 사실상 ‘국어 수능’으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자연계 학생이 국어를 못 봤을 경우 사실상 수학으로 만회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한편 성적 통지표에는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등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표기되고,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만 표기된다. 수험생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5일 수험생에게 전달된다.

수험생들은 14일 마감되는 대학별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고 정시지원전략을 짜야한다. 수시모집 등록은 19일까지, 미등록 총원에 따른 추가 합격통보는 26일, 추가등록 마감은 27일이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마무리된 뒤 29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대학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수험생은 가나다순별 한 곳씩 총 3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구직자 75% “하반기 체감구직난 더 심해”

### 사람인, 구직자 418명 설문 95% ‘취업 대한 두려움 느껴’



구직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올해 하반기 구직난을 여느 때보다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사람인이 구직자 418명을 대상으로 ‘2018 하반기 체감 구직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4.4%가 올 하반기에 구직난이 심해진 것으로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67.6%)보다 약 7% 증가한 수치다.

구직난이 심화됐다고 느낀 이유(복수 응답)로는 ‘경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52.1%), ‘지원 경쟁률이 높아져서’(49.2%), ‘채용을 실시한 기업이 줄어서’

기친 영향(복수응답)으로는 ‘입사지원 횟수 증가’(59.5%), ‘눈높이 낮춰 입사지원’(58.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밖에 ‘묻지마 지원’(36%), ‘자격증 등 스펙 향상에 집중’(27%), ‘공무원으로 진로 변경’(9.3%), ‘취업 사교육에 투자’(9.3%), ‘인턴 등 실무 경험 쌓기 매진’(8.7%), ‘해외 취업에 적극 나섬’(8%), ‘창업에 준비함’(7.7%) 등이었다.

특히 구직자 대부분(95.5%)이 구직난으로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구직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불편을 느끼는 약간 심한 수준’(54.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치료를 요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답변도 16.1%에 달했다.

이처럼 심화된 구직난이 구직자에게

/한용수 기자

### NE능률

#### 3대 토익 인강 ‘반값 할인’

종합교육서비스기업 NE능률(전 능률교육)은 토마토토의 공식 인강 사이트 ‘토마토클래스’가 토단비 출시 5주년을 기념해 3대 대표 토익강좌 반값 할인 이벤트를 오는 14일 정오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토단비는 토익 단기달성 강좌로 출시 5년만에 누적 수강생 13만명을 돌파한 토마토클래스의 대표적인 토익 인강이다. 4주 안에 목표 점수를 달성하도록 강의수를 절반으로 줄여 학습시간을 단축하고 핵심을 통해 핵심 내용만 반복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이벤트에 따라 ‘토단비 생기초’, ‘토단비 700’, ‘2학년 토익’ 등 토마토클래스 3대 대표 강좌 수강생은 출석이나 목표 점수 달성 등의 조건 없이 수강료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토단비 생기초는 영어 왕초보를 위한 강좌로 시중 토익 기초 강의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토단비 700은 4주간 토익 700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입문 강좌이고, 2학년 토익은 입문부터 실전까지 한번에 학습해 단기간 고득점 달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 전문 토익 코스 강의다. /한용수 기자

## 올해 채용 서비스업 활발, 건설업 소강

### 잡코리아, 1월~11월 채용 분석

올해 채용 시장에서 서비스업종 채용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직은 IT정보통신업종이 신입직에선 제조생산업종에서 채용 공고가 많았다.

잡코리아는 올해 1월~11월까지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채용공고 수를 업종별

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채용공고가 가장 많이 등록된 산업분야는 ‘서비스업’(23.6%)이었고, 이어 금융업(15.9%), IT정보통신업(15.1%) 제조생산업(13.2%) 건설업(7.8%) 순으로 채용공고가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채용공고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IT정보통신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포인트 증가(12.7%→15.1%)였다. 건설업도 지난해 동기 대비 1.8%포인트 증가(6.0%→7.8%)했고, 금융업은 0.1%포인트(15.8%→15.9%) 채용공고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입직 채용공고가 가장 많이 등록된 업종은 ‘제조생산업’(22.9%)이었고, 이어서비스업(18.9%) IT정보통신업(11.9%) 건설업(10.3%) 순으로 신입직 채용공고가 많이 등록됐다. /한용수 기자

**Wenger®**  
**Swiss Made**  
**Watches**

**125** SINCE 1893  
 A SWISS COMPANY



 **WENGER®**

wenger.co.kr



**신한카드,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신한카드가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고객 중심의 경영 활동을 바탕으로 고객과 소통을 확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으로 제도 및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신한카드



**롯데하이마트, 노사 합동 '연탄배달 봉사'**  
롯데하이마트가 4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200여가구에 연탄 3만 5000장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롯데하이마트 장대중 영업본부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해 롯데하이마트 사투데 봉사단 40여명, 롯데하이마트 노동조합원 10여명 등 총 50여명이 참여해 중계동 내 연탄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 /롯데하이마트



**법무법인 바른, 전원마을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지난 1일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자원봉사에는 바른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1만2500장을 기부하고, 15가구에 3200장을 직접 배달했다. /법무법인 바른



**쏘카,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대통령상'**  
쏘카는 지난 3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쏘카는 공유경제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최적화된 이동 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공유경제 산업 선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재욱 쏘카 최고전략책임자(오른쪽)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쏘카

## 동화자연마루, JTBC 드라마서 제품 선택

강마루 대표제품 '나투스 진' 협찬

동화그룹은 동화자연마루가 JTBC 월화드라마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에 강마루 대표 제품인 '나투스 진'을 협찬했다고 4일 밝혔다.

나투스 진은 친환경 신소재 나프(NAF·포름알데하이드 무첨가) 보드를 활용한 최고급 바다재로 포름알데하이드 방출이 거의 없고 라돈(Radon) 저감 기능도 갖췄다. 일반 강마루 대비 내수성, 내구성도 월등하다.

나투스 진은 총 24가지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제품으로 구성돼 있어 공간을 구성하는 분위기로 연출하기 쉽다.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는 청결이 목숨보다 중요한 꽃미남 청소업체 CEO 장선결(윤균상 분)과 청결보다 생존이 먼저인 열정 가득한 취업 준비생 김오솔(김유정 분)이 만나 펼치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극중 장선결(윤균상 분)의 회사인 '청소의 요정' 휴게공간에 시공돼 청소 회사의 깨끗하고 밝은 느낌과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편안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출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성공적인 임플란트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임플란트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임플란트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임플란트'하면 고액의 치료비용과 긴 치료기간, 부작용 등에 대한 위험 때문에 시술을 꺼리는 환자들이 많았지만, 최근 치의학 기술의 발달과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으로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치과 보철치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만큼 임플란트 실패 및 부작용 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보철물의 탈락·파손 ▲상악동의 천공·누공 ▲교합이상 ▲상부 보철물과 매식체를 연결하는 연결기둥 부위가 파손되거나 느슨해지는 현상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교합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치과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능력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 후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이 잘 맞는지, 주변 치아와의 교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이때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에 의해 잇몸뼈가 손상되어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치조골이 손상되어 임플란트가 어렵다면 '잇몸뼈이식술'을 먼저 시행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잇몸뼈이식술은 치조골 부위의 결손 정도와 이식목적, 환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라 시술방법과 종류가 결정되는데 최근 치조골 조성을 촉진시켜 발치부터 임플란트 시술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인 제품들이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이밖에도 임플란트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선 의료진의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다음으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환자의 잇몸상태와 잇몸 뼈, 각도, 골밀도, 기울기 등을 정확하게 측정해 뒤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미리 예측하여 수술이 진행되어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만일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골다공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사에게 미리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개개인의 구강상태에 맞는 시술방법을 택해야 한다.

환자의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임플란트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을지라도 정기검진을 통해 뼈 흡수량을 검사해야 하고,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상태(교합)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이상이 있을 시 조정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스케일링과 치과 정기검진은 1년에 1~2회가 적당하고, 흡연자인 경우에는 2회 이상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승진치과 원장

## KB국민은행 '고객중심 경영철학' 인정 받아

국가고객만족도 은행부문 1위

KB국민은행은 4일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발표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은행권 최초로 총 12회에 걸쳐 은행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고객만족도(NCSI)조사는 기업의 품질경쟁력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미국 미시간 대학과 한국생산성본부 공동 개발했다. ACSI(미국고객만족도)와 동일한 측정방법론을 이용해 대표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은행 전체 시스템을 고객 맞춤으로 전환하고 있다. 더불어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측정을 통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며, 제도 및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개선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은 지난 9월 KB금융 10주년 기념사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빠른(Fast)', '쉬운(Easy)', '단순한(Simple)' 고객 중심의 KB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룹 차원에서 고객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와 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가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객 친화적인 영업인프라 구축, 디지털 금융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객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진정한 국민의 은행'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허인 KB국민은행장(왼쪽)이 4일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 1위 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정은승 삼성사장, 파운드리 중요성 강조

국제반도체소자학회서 기조연설

삼성전자는 정은승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사진)이 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반도체소자학회(IEDM)에서 기조연설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파운드리'다.

IEDM은 세계 3대 반도체 학회 중 하나다. 전 세계의 반도체 전문가들이 모여드는 행사로 알려져있다.

정 사장은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전망했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홈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

리'다. IEDM은 세계 3대 반도체 학회 중 하나다. 전 세계의 반도체 전문가들이 모여드는 행사로 알려져있다.

정 사장은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전망했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홈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



은 수준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며, 파운드리 사업도 디자인 서비스에서 패키지/테스트까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 파운드리 기술을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인사

- ◆**중소벤처기업부** ◇ 승진 △ 기획조정실장 김영환
- ◆**한국관광공사** ◇ 전보 △ 도쿄지사장 정진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영지원실장 강상규 △ 기획홍보실장 이형준 △ 국제협력본부장 최선경
- ◆**삼양그룹** (삼양홀딩스) ◇ 승진 △ Staff그룹 장윤재업 사장 △ HRC장 정지석 상무 △ Compliance실장 이택현 상무 △ IC Global성장PU장 김건호 상무 ◇ 보직변경 △ Compliance실 경영진단팀장 박상훈 상무 (삼양사) ◇ 승진 △

- 식품그룹장 송자량 부사장 △ 식품BU장 최낙현 상무 △ 마케팅PU장 양철호 상무 △ H&B사업PU장 양영정 PU장 △ 화학연구소장 조성환 상무 △ 헝가리EP 법인장 이희종 법인장 △ 관리PU장 이희정 PU장 ◇ 보직변경 △ 식품BU 영업PU장 김재홍 상무 △ AMBU 영업PU장 유태승 상무 △ 베트남EP 법인장 이윤의 상무 (삼양패키징) ◇ 승진 △ 아섹팅영업PU장 송창우 상무 (삼양바이오팜) ◇ 승진 △ 대표이사 임태용 사장 △ MD사업PU장 이재두 상무 ◇ 보직변경 △ 의약바이오연구소장 조혜련 상무 (삼남석유화학) ◇ 승진 △ 관리PU장 이철주 상무 (삼양데이터시스템) ◇ 승진 △ 대표이사 홍성민 상무

◆**아시아경제** △ 정치부장 정완주

### 부음

- ▲ 정은소씨 별세. 정영수(전 충북도의회 의원)씨 부친상 = 3일 오후 5시 50분, 충북 진천 제일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5일 오전 8시 30분. 043-537-4441.
- ▲ 박근화씨 별세. 김철하(한국금속 과정)·용하(충남교향악단 단원)씨 모친상. 김종석·조규식(KT 포항지사 차장)·한기민(포항MBC 보도부국장)씨 장모상 = 4일 오전, 포항시민장례식장 VIP실, 발인 6일 오전 7시. 054-253-4444.



할인받고 할인받고 또! 할인받고

# e커머스업계, 연말까지 멈출 줄 모르는 파격할인 행사

**위메프**  
‘블랙1111데이’ 이어 ‘메리1212데이’  
**티몬**  
‘티몬데이’ 1시간마다 파격가 선포  
**쿠팡**  
‘최후의 만찬’ 기획전·신규 테마 오픈



메리1212데이. /위메프

광군제, 블랙프라이 등의 이슈로 11월부터 이어진 쇼핑 열풍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연말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연말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커머스 마케팅 분석업체 크리테오에 따르면, 올 연말 쇼핑 트렌드는 선물 구매 시기가 빨라지고 모바일을 사용한 구매가 증가할 전망이다.

위메프는 지난달 1~11일 ‘블랙1111데이’ 누적 거래액 2300억312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12월에는 ‘메리1212데이’를 진행한다. 지난 1~2일 전체 거래액 327

억8634만원을 달성, 지난해 12월 첫 주말(2~3일) 208억8398만원 대비 거래액이 57% 증가했다.

‘메리1212데이’는 오는 12일까지 결제 금액의 최대 50%를 위메프 포인트로 돌려주는 행사다.

위메프는 해당 기간 동안 하루 총 5만



‘티몬데이’. /티몬

또는 20%를 위메프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금 상한액은 5만원이다.

티몬은 매주 월요일 시간대별 파격혜택 상품을 선보이는 ‘티몬데이’를 운영한다.

12월 매주 월요일이 시작되는 자정 00시부터 24시간동안 아이폰XR, 광항공권, 프라다 가방, 커피상품권 등 파격적인 가격의 상품 총 1000여종을 1시간 간격으로 선보인다.

첫날인 3일 월요일 자정에 선보인 대표 상품으로는 아이폰 XR이 있다. 시중 80만원대에 판매중인 제품을 29만9000원(5대 한정)에 판매했다. 이를 시작으로 1시간 간격 총 24번 새로운 상품이 선보였는데, ▲롯데면세점 선불카드 1만원권(200매)을 990원에, ▲리안 그래플러스 유모차(100대)를 9900원, ▲아디다스 룩 패딩(20개)을 7만9000원에 선보이는 등 누구나 갖고 싶던 매력적인 상품을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에 제공했다.

쿠팡은 연말을 맞아 인기 주방용품을 한 곳에 모아 선보이는 ‘최후의 만찬’ 기

획전과 ‘복포라이프’ 카테고리의 신규 테마 ‘선물’을 오픈했다.

‘최후의 만찬’ 기획전에서는 주방용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11월 30일부터 2주간만 만나볼 수 있는 기간 한정 기획전이다.

쿠팡, 크린랩, 포트메리온, 테팔 등 주요 브랜드 제품을 포함 약 3300 개의 엄선된 주방용품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다. 2018년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상품들을 모아 2018 베스트셀러관을 따로 구성하여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센스 있는 선물 추천, 휴파티를 위한 요리의 즐거움을 선사할 룩웨어, 주방가전, 파티를 돋보이게 할 테이블웨어 등 4개의 테마관과 보온용품, 프라이팬, 유아/아동식기 등 14개의 카테고리관으로 나눠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연시는 활발한 소비가 이뤄지는 시기다”라며 “고객에게 최상의 혜택과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국내 최대 규모 ‘VR스테이션’ 강남점 오픈.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IT전문기업인 현대IT&E는 3960㎡(1200평) 규모의 ‘VR 스테이션’ 강남점을 열어, 일본 유명 엔터테인먼트 기업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와 국내 유명 VR 게임 콘텐츠를 비롯해 영화·미디어아트·웹툰 등 다양한 VR 문화 콘텐츠를 운영한다. 4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 ‘VR 스테이션 강남점’에서 모델들이 VR 슈팅(총싸움) 콘텐츠 익스트림 아레나를 즐기고 있다. /현대IT&E

## AK플라자, NSC형 ‘AK&기흥’ 그랜드 오픈

(상권 특화형 쇼핑센터)

홍대 이어 상권 특화형 두번째 점포  
2022년까지 8개 오픈 예정  
3040대·패밀리 고객 공략



AK&기흥 외관. /AK플라자

AK플라자가 NSC형(상권 특화형 쇼핑센터) 쇼핑몰 2호점을 선보인다.

AK플라자는 오는 14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에 위치한 NSC형 쇼핑몰 ‘AK&기흥’을 그랜드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AK&수원’, ‘AK&홍대’에 이어 ‘AK&기흥’ 쇼핑몰 브랜드의 세 번째 점포이지만, NSC형 쇼핑몰 방식으로는 ‘AK&홍대’에 이어 두 번째 점포이다.

‘AK&기흥’은 기흥구 상권 고객의 하루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데일리 라이프 스타일 쇼핑몰을 추구한다.

연면적 6만826㎡(1만8400평), 영업면적 3만6364㎡(1만1000평)의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7개층 공간에 기흥 상권 고객에게만 특화된 MD 총 84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서비스하는 쇼핑몰이다.

AK플라자는 ‘AK&기흥’의 주요 공략고객층을 기흥상권의 30~40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패밀리 고객으로 정했다. 용인시 기흥구 인구 43만명 중 30~40대 구성비가 35%를 차지하고, 이들과 가족으로 연관된 연령인 10대 이하 21%를 포함하면 기흥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6%가 30~40대 부모를 중심으로 한 패밀리 고객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AK&기흥’은 젊은 고객에 특화된 쇼핑몰로 오픈한 ‘AK&홍대’와 전혀 다른 콘셉트의 브랜드 구성을 선보인다. 패밀리 가족이 선호하는 카테고리 ‘극장, 서점, 뷰티, 패션, F&B, 패밀리 테마파크, 라이프스타일’ 등에 포함된 총 84개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AK&기흥’ 지하 1층에는 데일리 쇼핑 브랜드를 집중시켰다. 롯데프리미엄푸드마켓, 올리브영, JAJU(자주), 다이소, 뷰티 브랜드, 여성패션 등 총 20개 브랜드를 선보인다. 지상 1층은 가족 단위 패션 쇼핑 고객을 타깃으로 한 스포츠 및 패션잡화 매장으로 구성된다.

2층은 무인양품, 북스리브로 등 30~40

대 연령층의 매장 체류형 고객을 위한 토달 라이프스타일 매장이었다. 3층에는 유아동 동반 고객을 위한 유아동 및 근린형 편의시설 중심으로 꾸몄다.

4층은 패밀리 외식공간으로 송추가마골, 어글리스토브, 사이바나, 시마스시, 메이탄, 안동국시 등 14개 F&B 브랜드가 입점했다. 5층과 6층은 패밀리 여가 공간으로 5층에는 롯데시네마, 6층은 패밀리 테마파크로 구성된다.

AK플라자는 NSC형 쇼핑몰 ‘AK&홍대’, ‘AK&기흥’에 이어 2019년 3월 ‘AK&세종’, 2022년 상반기 ‘AK TOWN 안산’ 등 2곳의 쇼핑몰 오픈을 확정했다. 2022년까지는 4개의 쇼핑몰을 더해 총 8개의 쇼핑몰 오픈을 목표로 잡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태국 소 유통채널 입점... 가정시장 공략

**하이트진로**  
로터스 익스프레스에 이슬톡톡 입점  
젊은층 인기... 3년간 연평균 75% 성장



태국 마크로에서 소비자가 참이슬을 고르고 있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가 태국 전 유통채널 입점을 통해 가정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태국에 1500여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로터스 익스프레스(Lotus Express)에 이슬톡톡(현지명 to ktok)을 입점하고 현지 가정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소주 세계화의 일환으로 동남아 일대 현지화를 추진하고 하이트진로는 2015년 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현지인들을 타깃으로 한 가정 시장 진입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태국 유통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형마트 4개사에 참이슬과 과일리큐르, 이슬톡톡 등 전 제품을 입점시켰다. 또한 방콕 등 대도시 인근 편의점 2개사 다수의 점포에 참이슬 및 이슬톡톡 등 전략 제품을 입점시키면서 4200여개의 매장에서 하이트진로 제품을 판매하게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태국내 소주 판매량은 최근 3년간 27%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 추세다. 이중 과일소주 및 RTD 제품은 20~30대에 인기를 끌며 최근 3년간 연평균 75%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상무는 “현지 유통채널 입점으로 본격적인 가정시장 공략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현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오리온 ‘꼬북칩’, 한·중 누적판매 1억봉 돌파

오리온은 ‘꼬북칩’이 한·중 합산 누적 판매량 1억 봉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국내에서 먼저 선보인 꼬북칩은 누적판매량 6500만봉을 기록하며 2년 연속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에만 4200만봉이 팔리며 신제품 출시 2년 차에 부진을 겪는다는 식품업계의 ‘소포모어 징크스(sophomore jinx)’를 이겨냈다. 특히 최근 출시한 ‘히말라야소금

맛’이 SNS상에서 입소문이 나며 성장세를 견인했다. 가수 헨리를 모델로 한 꼬북칩 바이럴 영상 조회수가 600만건을 돌파하는 등 1020세대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것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지난 5월 현지명 ‘랑리거랑’으로 출시, 7개월 만에 누적판매량 3800만 봉을 돌파하며 현지화 기준 매출액 1억3000만위안을 넘어섰다. 기존에 경



험해보지 못한 4겹의 바삭한 식감과 현지 입맛을 고려해 ‘콘스프맛’과 함께 ‘멕시코 BBQ 맛’을 출시한 것이 주효했다. 꼬북칩이 출시 초기부터 해외 바이어들의 러브콜을 받아온 만큼, 수출 국가를 지속적으로 늘려 세계 각지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염색체 이상·일스병 등 100개 질환 내년 추가지정

# 희귀질환자 의료비 '90%' 지원

복지부, 희귀질환 927개로 확대  
2020년엔 '선별급여 제도' 시행

100개 질환이 희귀질환으로 추가 지정돼 내년 1월부터 환자 약 1800명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예정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희귀질환 조사와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롭게 추가된 일스병 등 100개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일스병은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시력을 감퇴시키는 망막관련 희귀질환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100개 희귀질환자(약 1800명)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져 외래진료나 입원진료 때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새로 희귀질환에 들어간 100개 중에는 유병인구 200명 이하의 극희귀질환 68개가 포함돼 있다.

별도로 복지부는 의료기술 발달로 새롭게 확인된 30개 기타 염색체이상 질환(염색체 결손, 중복 등)도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827개의 희귀질환 이외에 작년 8월부터 환자와 가족, 환우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 발굴한 100개 질환을 추가해 희귀질환 목록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희귀질환은 기존 827개에서 927개로 확대됐다.

이들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정 소득(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희귀질환자는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진료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정부는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희귀질환 지정신청을 받아 연 1~2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의약품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2020년 목표로 '의약품 선별급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의약품 선별 급여 제도는 비용 대비 효과가 불명확해 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웠던 의약품 중에서 사회적 요구가 많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 부담률(암·희귀질환은 30%, 50% 부담)을 높여서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비급여로 사용하는 것보다 환자의 약품비용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지난 7월부터는 희귀질환 치료제와 치료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 승인받지 않고 사후 승인조건으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 사후 승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밥 대신 빵?

## “아침은 카페서 샌드위치로!”

커피프랜차이즈, 아침족 공략

소시지·고기·치즈 등 영양 풍부  
조리시간 없이 바로 구입도 가능

커피 프랜차이즈업체가 다양한 샌드위치 제품들을 선보이며 아침족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아침식사대용식 시장이 지난해 약 3조원으로 급성장했다. 최근 샌드위치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샌드위치는 포카치아, 치아바타 등 빵에 채소와 소시지, 고기, 치즈 등 다양한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맛과 영양이 풍부해 한 끼 식사대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조리시간이 필요없어 바로 구입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이 간편하게 즐기기에 제격이다. 또한 혼밥을 즐기는 고객들도 부담없이 카페에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인기다.

투스썸플레이스는 포카치아(Focaccia)에 햄, 치즈, 닭가슴살, 크랜베리 등 다양한 재료를 넣은 '포카치아 샌드위치' 2종을 출시했다. 포카치아는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 소금 등을 넣고 납작하게 구운 이탈리아 전통 빵이다. 투스썸플레이스는 더욱 담백한 맛을 살리기 위해 포카치아에 감자를 더해 구웠다. '햄치즈 포카치아 샌드위치'는 감자 포카치아에 햄, 치즈, 양상추, 토마토를 넣어 신선한 맛과 고소한 풍미를 동시에 살린 제품이다. '크랜베리 치킨 포카치아 샌드위치'는 마요네즈 드레싱으로 버무린 닭가슴살, 호두, 크랜베리 및 샐러리가 어우러진 맛이다.

드롭탑은 '프레쉬 샌드위치' 6종을 선보였다. 프레쉬 샌드위치는 유로피안 스타일의 치아바타 제품과 신선한 야채와 쫄깃한 소시지를 넣은 샌드위치 등 취향에 따라 원하는 샌드위치를 선택해 신선하게 즐길 수 있다.

치아바타에 매콤한 핫치킨과 멜팅 치즈를 넣은 '핫 멜팅치즈 치아바타'와 오븐에 구운 야채와 버섯 등을 담은 '그릴드 베지터블 치아바타', 매콤 달콤한 질리 소스와 질면조, 닭가슴살 햄, 신선한 야채를 넣어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터키치킨 브레스트 치아바타', 소시지와 아보카도, 토마토 등이 어우러진 '구아카몰 소시지', 망고의 달콤함과 매콤한 소스가 만나 단짠단짠의 맛을 가진 '망고 살사 소시지'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카페베네는 크로와상과 파니니로 만든 샌드위치 4종을 판매한다. '에그베이컨 크로와상'은 계란프라이와 베이컨, 햄, 치즈를 크로와상 사이에 넣어 진한 맛을 더한 샌드위치다. '크랩맥앤치즈 크로와상'은 계맛살과 맥앤치즈를 크로와상으로 감싸 담백하면서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어니언햄모짜렐라파니니'는 볶음양파와 햄에 모짜렐라치즈를 넣고, 샌드라이토마토로 신선한 맛을 더했다. '바질치킨머쉬룸 파니니'는 훈제 닭가슴살과 발사믹 소스 버섯볶음에 바질페스토 소스로 풍미를 높였다. 샌드위치는 아메리카노 또는 라떼와 함께 구성된 세트 메뉴로도 즐길 수 있다.

커피빈은 기본 샌드위치 종류의 다양화를 위해 빵에 다양한 고기를 넣어 만든 샌드위치 2종을 선보인다. '하프 앤하프 샌드위치'는 바베큐치킨과 스파이스치킨 두 가지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제품으로 든든하고 가성비가 좋다. '불고기 모짜렐라 샌드위치'는 불고기와 고소한 모짜렐라가 함께 어우러지는 맛이 특징이다. 두 제품 모두 고기가 더해져 포만감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샌드위치는 빵과 고기, 채소, 치즈 등이 어우러져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며 "최근 식사대신 샌드위치를 즐기는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릴드 베지터블(왼쪽부터), 터키치킨 브레스트, 핫 멜팅치즈 /드롭탑



햄치즈 포카치아 샌드위치 /투스썸플레이스



JVM, 오류 줄이고 포장지 절약 'NS20' 개발

## “의약품 조제도 똑똑하고 효율있게”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제이브이엠이 조제 오류를 막고, 포장지 까지 절약할 수 있는 신제품(NS20)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NS20 모델은 병원 앞 대형약국 및 병원 원내 약국에 적합한 기종으로, 기존의 전자동 의약품 분류·포장 시스템인 'AT DPS'에 최신 센서 및 통신기술인 'ACRS-III'가 적용됐다.

'ACRS-III'는 약품이 들어가 있는 통(캐니스터) 위치를 자동 인식하는 기술로, 이 기술이 적용된 이번 신제품은 조제 중 의약품 투하 오류가 감지되면 투약을 자동으로 중지하고, 오류 내역을 즉시 인쇄함으로써 조제 오류를 방지한다.

특히, 하부 메인 프레임 전체가 탈부착이 용이해 에러 발생 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의약품의 크기와 수량에 따라 조제 봉투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어 소모품인 포장지를 절약할 수 있다. 조제를 위해 이동하는 약품 경로도 개선해 포장 속도 역시 대폭 향상됐다.

수동조제 상황을 위해 배치된 의약품 구분 통(트레이)은, 최대 6가지 색상 LED로 구분돼 있어 약사가 투약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제품의 구조를 단순화해 공간 배치 효율성을 높였다.

제이브이엠 김선경 부사장은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 'NS20'은 생산성, 공간 효율성 및 청소관리 등이 대폭 향상된 최신



NS20

형 자동조제기"라며 "제이브이엠은 최신 기술 적용을 위한 R&D에 적극 투자해 조제문화 혁신과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 1호 '해썹'

상품 입고·보관 등 매장 위생 검증

롯데슈퍼가 '안심 쇼핑 환경 구축'에 나선다.

롯데슈퍼는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 서초점'이 지난달 21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매장 전체에 기타식품판매업 해썹(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제조가공업 중심이었던 해썹 인증을 식품 유통업계에서는 1호로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이 인증을 받은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해썹은 300㎡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등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그동안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던 상품의 입고부터 보관, 작업, 포장, 진열, 판매까지 상품과 매장 전체의 위생 상태를 검증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품을 유통하는 공간임을 공인하는 제도다. 각 단계의 위생 상태를 36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하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 서초점 외관 /롯데쇼핑

며,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상품 입고 및 보관 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식품인지, 식품의 신선도, 표시사항, 포장 파손 등 상품의 상태가 양호한지, 냉장, 냉동 식품은 지정된 온도에서 운반 및 보관되는지 등의 항목을 관리한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스마트학생복-수박씨닷컴

## 행운의 포춘쿠키 이벤트

스마트학생복은 비상교육의 인강 브랜드 수박씨닷컴과 함께 중학생들을 위해 '행운의 포춘쿠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총 3가지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월 22일 이후 수박씨닷컴에 신규 가입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수박씨닷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이벤트로 5가지 종류의 포춘쿠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문화상품권, 인강 할인권, 간식 교환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매장 방문 이벤트로 스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쿠폰을 수령한 후 쿠폰번호를 수박씨닷컴 이벤트 페이지에 등록하면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간식과 함께 수박씨닷컴 강좌 할인권을 100% 증정한다.

스마트학생복 관계자는 "겨울 방학 동안 스마트학생복 공식 캐릭터 옐리, 미디, 하이와 함께 수박씨닷컴 인강으로 공부하자는 의미를 담아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 K2, 크리스마스 맞이 수지 팬사인회 진행

아웃도어 브랜드 K2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오는 22일 명동 롯데시네마 에비뉴엘 5관에서 전속모델 수지 팬사인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팬사인회는 16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K2 매장에서 10만 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팬사인회 응모권을 증정하며,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80명에게 팬사인회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수지와 함께하는 팬사인회는 22일 오후 3시부터 포토세션을 시작으로 팬들과



의 만남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삼표그룹, 겨울 맞아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전달

### 서울·삼척서 연탄 1만1500장 전달

삼표그룹이 겨울을 맞아 서울과 삼척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1만1500장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삼표그룹은 지난달 29일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일대를 찾아 '삼표가 그린 따뜻한 겨울, 연탄나눔 봉사'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각 계열사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임직원 60여 명이 14가구에 연탄 2800장을 직접 배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나머지 연탄 7200장은 성북구청을 통해 정릉동 일대에 사는 저소득가정 36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삼표산업 몰탈부문 최장현 상무는 "혹한의 추위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삼표가 전달한 연탄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표시멘트 임직원들도 지난 1일



강원도 삼척지역 내 에너지 빈곤층을 찾아 연탄 1500장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삼표그룹은 창립기념일인 12월 1일을 전후해 매년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연탄을 매개로 한 봉사활동은 과거 삼표그룹의 전신인

강원그룹이 '삼표연탄'으로 전국민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보답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삼표는 연탄나눔 봉사 외에도 '장학재단 운영', '친환경 미술캠프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혁신 신약의 조건



기지수첩

이세경 (유통&라이프부)

"정부가 언제 우리 편인 적이 있나." 최근 한 제약사 직원의 한숨에 2012년이 오버랩됐다. 기자가 제약업계를 처음 담당했던 그 해에도 약가인하는 최대 이슈였다. 보건당국이 보험 재정 악화를 근거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가격을 평균 14% 인하하는, 유례없는 약가인하 정책을 내놓았던 때다.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지만 복제약(제네릭)과 리베이트 만으로 영업했다는 질타가 되돌아왔다. 약가는 예정대로 낮아졌고, 제약사들은 수년간 손실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다.

6년 만에 돌아온 업계 분위기는 달랐다. 2015년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수출을 시작으로,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성과가 줄줄이 이어졌다. 최근 유한양행은 1조4000억원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11월 한달 기술수출 금액만 2조8770억원, 올 한해 성사된 기술이전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약가 정책은 여전히 제약사 편이 아니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제네릭 최고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였던 제네릭의 최고가 기준을 낮춰 제네릭 출시를 줄이고 보험재정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신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혁신신약우대제도 개정안에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획기적의약품 지정(BTD) 또는 유럽 의약품(EMA) 신속심사 적용' 항목이 신설됐다. 혁신신약으로서 약가를 우대 받으려면 해외에서 먼저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내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가치를 어느 나라가 인정해주겠나"라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신약은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으로 탄생한다.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혁신 신약이 탄생할 수 있다. 국내 약가는 현재 OECD국가 평균 40%에 그친다. 글로벌 약가 역시 국내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낮은 약가가 글로벌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불과 한달 전, 포럼에 참석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서 허가 받은 신약들이 해외에서 바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진심은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 묻고 싶다. /seilee@metroseoul.co.kr

# LS전선 사보 '오픈마인드' 특별부문 대상

LS전선은 사내보 오픈마인드(Open Mind)가 한국사보협회의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보 특별부문 대상(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오픈마인드는 매달 현장의 고민들을 담은 특집 주제를 선정해 임원부터 생산직, 신입사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경영층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격려와 공감을 통해 소통하려고 노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워크 다이어트, 회의·보고, 워라벨, 회식 등 일 문화 개선과 밀레니얼 세대, 요즘 팀장 등 계층별 고민들을 특집 주제로 다뤄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1962년 설립된 LS전선은 1975년부터 40년 동안 매월 사보를 제작, 이번 달 통권 517호를 발행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국가 인프라 사업에 기여해 온 전선업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사보가 임직원들이 서로 경



LS전선 사보 이미지.

/LS전선

험을 나누고 동료애를 느끼는 '열린 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오늘의 운세 12월 5일 (음 10월 28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깨뜨리 도움을 받겠다. 60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 72년생 날씨가 변화무쌍하니 우산과 비옷이 필요. 84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 소** 49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61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73년생 장성의 방향인 서쪽으로 가면 귀인 상봉. 85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해 보자.
- 호랑이** 50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이니 거칠 것이 없다. 62년생 하나를 투자하고 열을 얻는 운 좋은 날. 74년생 신세 쪼든 사람이 빛을 갈려온다. 86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 토끼** 51년생 자신의 약점은 가족에게도 함구. 63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 않으니 중심을 잘 잡자. 75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준비. 87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은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 말** 52년생 물 건너서 소식이 오니 근심이 생긴다. 64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귀서 돌아오니 이득. 76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88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항상 준비.
- 뱀** 53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65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함을 명심. 77년생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통로를 만들어 낸다. 89년생 친구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 말** 54년생 농친 고기를 아끼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66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78년생 고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90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 양** 55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67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은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79년생 꾸리는 들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꾸준히 노력. 91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 원숭이** 56년생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68년생 모두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할 줄 알아야. 80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92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 닭** 5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69년생 병원을 천상(天降) 방향인 동남쪽에 가서 찾아보라. 81년생 고랑 치고 가재 잡는 날. 93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 법이란 걸 명심.
- 개** 58년생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니 고만해질까 우려. 70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이 위로를 준다. 82년생 배우자 외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94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귀인이다.
- 돼지** 59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7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도장은 내일 찍어라. 83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 95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수수가 될 수 없음을 명심.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5		6		
1	6		8		2	3		
			4			7	1	
3	7		4					
		9		7		1		
				5		4	7	
2	3			1				
	5	8			2	1	3	
7		4				9		

	1			8	7		6	
	7	2			9	5		
		6						
				6		3	9	4
6		1	7	9			8	
	5				2	1		
	2	4		8	6			7
		8			3		6	2

스도쿠 정답

2	9	6	8	5	7	1	4	
1	7	3	9	4	8	5	6	
8	5	4	7	6	9	3	2	
4	7	5	6	9	1	2	8	
5	2	1	8	4	3	6	7	
6	8	9	1	7	2	5	4	
1	4	8	9	7	2	5	6	3
7	2	6	5	8	4	9	1	
9	6	5	4	1	2	8	7	
2	9	7	4	5	8	6	1	
4	5	6	9	8	1	7	2	
8	1	2	7	6	9	5	4	
1	4	9	5	8	6	7	2	
5	8	2	7	6	4	1	3	
7	6	1	9	2	4	8	5	
6	1	8	4	2	5	9	7	
1	7	5	6	1	9	2	4	
9	2	4	8	5	7	3	1	

문제 제공= 보너스

# 김상회의四季

## 영상시대 도화는 좋은 사주



김상회의 사계

영상시대 도화는 좋은 사주

입신양명은 유교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다. 입신양명은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후세까지 이름을 날리는 것을 말한다. 옛날엔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게 출세였다. 자리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얻어지는 사회적 권력과 금력을 가질 수 있었다. 요즘도 관가의 높은 벼슬이나 직장의 높은 자리가 권력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모습은 바뀌고 있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한 요즘은 영상 시대이다. 영상시대에는 텔레비전 인터넷 유튜브를 선호한다. 영상에 많이 나올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도 상위권에 오른다. 그래서 요즘은 연예인이나 예능인들이 대중의 스타가 된다. 스타는 수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고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을 벌어들인다. 요즘은 이렇게 영상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권력자인 셈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주에는 도화가 있다. 도화 사주는 이성을 끌어들이는 매력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예전에는 도화를 복잡한 이성관계라고 인식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다. 현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도화가 출세의 사주가 되는 시대이다. 딸 사주에 도화가 있다며 걱정하는 엄마가 상담을 청한 적이 있다. 많은 고민을 하는 엄마에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요즘은 도화의 시대입니다.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잘 사귀며 남들의 시선을 끌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죠. 영상매체에 빈번히 나오는 연예인들을 누구나 부러워하지요. 사회적 명성도 얻고 수입도 많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도화 사주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 일러줬다. 그것은 딸을 공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지식과 인성을 쌓지 않고 단순히 남의 관심을 받는 것에만 매달린다면 결과가 좋지 않게 된다. 생각 없는 행동으로 위신을 추락시킬 것이고 그때는 도화가 오히려 인생의 화로 변할 수 있다. 자기의 사주와 운세를 운용할 줄 알면 작던 크던 차이는 있겠지만 성공을 거둘 것이다. 세상이 변하면서 사주의 호 불호가 달라지니 옛 생각에 얽매어 무조건적으로 도화 사주를 좋나쁘다 판단하지는 말아야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21-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98호

# 그냥 쉬 청년 200만 시대... 늘어나는 니트족 해결책은?

〈일하지 않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182만4000명... 2년전비 1.8% ↑  
2016년 기준 OECD서 7번째 순  
장기 니트족 대졸 등 고학력자 많아  
“막대한 사회경제적 기회비용 소모  
교육-실무 투트랙 정책 도입해야”

#.4년 전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을 졸업한 김선형(가명·32) 씨는 더 이상 입사지원서를 쓰지 않는다. 김 씨는 “학교 다닐 땐 다른 동기들처럼 행정고시 시험을 준비했는데 잘 안 됐다. 눈을 낮춰 7급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이것도 떨어졌다”면서 “서른이 넘자 마음이 급해져 공채가 뜨는 대로,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원서를 써서 냈는데 전패했다”며 허탈해했다. 김 씨는 “학창시절부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 써봤자 어차피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서류 접수도 안 한다”며 “사실상 취업 포기 상태다. 이제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느낌이 든다”며 한숨을 쉬었다.

학업이나 취업, 직업훈련 어느 것도 하지 않는 니트(NEET)족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교육-실



지난달 26일 KTX 서울역에서 코레일·중소기업진흥공단 주최로 열린 서울 청년 채용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 투트랙 정책을 도입해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난 청년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직 활동을 접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4일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냥 쉬었다’고 답한 구직 단념자는 182만4000명에 달했다. 이는 2016년 151만2000명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니트족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청년

들은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

김종욱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최근 청년층 니트의 특징과 변화’ 보고서에서 “많은 인문사회계열 대졸자들이 청년 니트화되고 있으며 이는 계열별로 가장 낮은 수준인 그들의 취업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장기 니트 중 대부분은 대졸 이상 청년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OECD에 따르면, 취업된 청년층과 청년 니트들 간의 문해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관찰된 나라들도 있었지

만,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이보다는 OECD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에 따라 고학력 노동공급자들이 꾸준히 시장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장기화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이들이 고스란히 시장 밖에 적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니트 규모는 2016년 기준 178만명으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청년 니트 비율이 높다. 연구소는 청년 니트들이 백수로 머물면서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 23조8000억원에서 최대 41조5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이는 GDP의 약 1.5~2.5% 수준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서 “청년 니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노동력이 사장되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청년 니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한국뿐만이 아니다. EU 공식 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유럽연합 28개국의 18~24세 청년 7명 중 한 명이 니트족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청년실업률이 낮은 국가군에 속하는 독일은 학교 교육과 수습 근로 활동을 병행하는 이원화 제도로 교육-일자리 간의 불일치 현상을 줄였다. 이원화 직업 제도의 장점은 청년층이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해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고, 학교-직장으로의 이행과정을 단절 없이 연결해 실업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것에 있다.

스위스는 유럽 국가 중 청년고용률이 61.6%(2014년 기준)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스위스의 직업훈련 역시 학교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이원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직업훈련 교육으로 약 25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실 수업과 기업 현장 실습을 함께 진행한다. 산학이 긴밀히 연계된 현장 중심적 훈련이 주를 이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원화 제도로 불리는 학습-근로 병행제도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원화제도를 처럼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 학업-직장으로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초딩’에 딱!... 신학기 책가방 大戰

안전·실용성에 스타일 갖춰  
인기 애니메이션과 콜라보

내년 ‘흑룡띠’들의 입학 앞둔 패션 업계가 신학기 가방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를 공략하는 제품들이 눈에 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패션 업체들이 기능은 높이고 디자인은 다양화한 신학기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대목인 입학 시즌보다 한 발 빨리 제품이 출시된 만큼, 연말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아이들의 가방을 구매할 때 단순히 디자인이나 구성만을 보는 시절도 지나간 지 오래다. 업체들은 스타일과 기능을 다양하게 갖춘 제품으로 간간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 키즈가 대표적이다. 빈폴 키즈에 따르면 이번에 신학기 가방 ‘라이트 캐주얼 백팩’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빈폴 키즈의 라이트 캐주얼 백팩은 무게와 가격을 모두 내린 제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경량 소재를 사용해 무게는 600g, 10% 이상 낮췄고, 가격은 20% 내렸다.

이 제품은 스타일과 실용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빈폴 키즈는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건강을 고려해 인체 공학적 설계를 가방에 적용했다. 클래식 체크 백팩과 핑키 백팩의 경우, 척추 곡선을 따라 가방과 등판이 밀착되도록 ‘쓰리 레이어(3 LAYER)’를 적용해 목과 허리의 충격 흡수 기능을 끌어올렸다.

네파 키즈도 성장기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보디가드백 삼층사’를 출시했다.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기능성을 적용하고, 부모들의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빈폴 키즈 제품컷. /삼성물산 패션부문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기능과 디자인, 색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색상을 강화한 제품인 주드 투인원 스쿨백, 캠백 스쿨백, 이드 스쿨백을 포함해 총 9종으로 출시됐다.

아이들의 니트를 충족시킬 제품도 출시됐다. 블랙아크 키즈가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와 협업을 통해 선보인 ‘신비아파트 책가방 컬렉션’이다. ‘신비아파트’는 투니버스에서 제작한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도깨비 신비와 하리, 두리 남매가 귀신들의 역을 함을 풀어주는 판타지 호러 작품이다. 블랙아크 키즈는 이번 컬렉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적용했다. 캐릭터 신비를 전면에 포인트

로 활용하고, 파스텔 색상과 패턴 디테일 등을 가미해 아이들만의 감성을 제품에 녹였다.

기능성 등판을 적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한편, U자형 어깨 멜빵으로 무게 하중을 최소화했다. 또 가슴 벨트는 탈부착이 가능하며, 야광 휘슬 버클로 제작돼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헤지스 키즈, 닥스 키즈 등은 아동 가방 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를 반영해 올해 생산 물량을 30% 늘렸다. 또한, 빈폴 키즈는 내년 1월 말까지 책가방 4종 세트(책가방, 신발주머니, 휴대폰 가방, 실내화)를 구매하면 15% 할인을 적용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김민서 기자

## 하나로 두가지 스타일링... ‘리버시블’ 대세로

와이드앵글·리복·코오롱스포츠 등  
리버시블 패딩·코트·무스탕 등 선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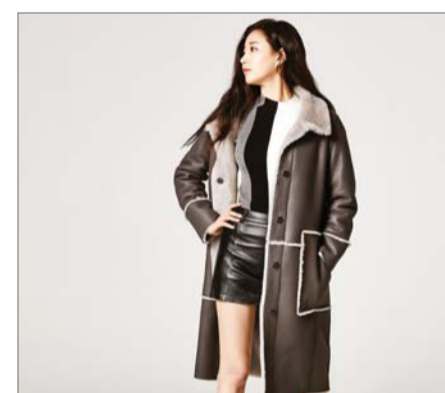
올 겨울 패션 아이템으로 양면을 뒤집어 입을 리버시블(Reversible) 의류가 주목 받는다. 안감과 겉감의 소재를 달리해 하나의 제품으로 두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포츠 브랜드부터 여성복 브랜드까지 다양한 업체에서 리버시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재킷과 코트, 패딩까지 제품군도 다양하다.

올 겨울 주목 받는 플리스(Fleece) 소재나 고급 퍼(fur) 소재 등을 사용한 제품들이 대표적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여성복 브랜드 지컷은 양면으로 입을 퍼 컬렉션 ‘데이&나잇’을 선보였다. 퍼 디자인에 야상 점퍼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 부문의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코오롱스포츠는 경량 패딩에 리버시블 스타일을 적용한 ‘키퍼 리버시블’을 출시했다. 안감에는 플리스, 겉감에는 나일론 경량 우븐 소재를 적용했다. 특히, 안쪽에 기능성 충전재를



와이드앵글의 리버시블 무스탕 재킷. /와이드앵글



/와이드앵글

적용해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보온성을 자랑한다. 야상형 디자인과 보머 스타일, 코트, 베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됐다.

스포츠웨어 브랜드 헤드는 1990년대에 사랑 받은 헤드의 리버시블 점퍼와 올 시즌 트렌드인 숏다운을 접목한 ‘NCT 턱백 다운점퍼’를 출시했다. 오버사이즈 핏으로 디자인했으며, 밑단을 밴드로 고정해 더욱 풍성하게 입을 수 있다.

스포츠 브랜드 리복은 캐주얼 브랜드 커버넌트와 함께 협업한 ‘벡터 다운 재킷’을 통패딩과 숏패딩, 두 가지 스타일로 선보였다. 이 제품들은 리버시블 스타일로 제작돼, 각각의 면에 리복 클래식의 벡터 로고와 커버넌트의 로고가 새겨져 있다.

최근 무스탕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리버시블 스타일을 적용한 제품도 인기를 얻고 있다. 골프웨어 브랜드 와이드앵글과 여성복 브랜드 보보, 올리브테올리브 등이 관련 제품을 내놨다.

와이드앵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선보인 리버시블 무스탕은 현재까지 전체 물량의 24% 이상이 소진된 정도로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와이드앵글의 리버시블 무스탕은 겉감은 양가죽, 안감은 양털로 제작돼 보온성이 높다. 또 안과 밖의 색상이 달라 다양한 코디가 가능하다. 골프웨어를 넘어 일상복으로도 활용도가 높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롯데호텔제주 호텔 최대 놀이공간 ‘플레이토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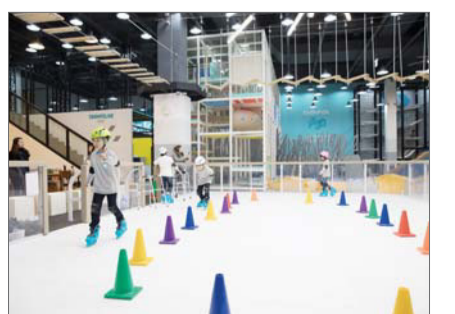
롯데호텔제주가 오는 20일에 국내 호텔 최대 규모의 멀티 놀이 공간 ‘플레이토피아’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상상 속 꿈의 놀이터를 콘셉트로 조성된 플레이토피아는 ‘플레이(Play)’와 ‘유토피아(Utopia)’에서 이름을 따왔다. 익스트림 어린이 스포츠 클럽 ‘챔피언 R’, 락 볼링장 ‘가인’, VR 체험존 등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마련됐다.

롯데호텔제주는 최근 여행 트렌드로

‘플레이케이션’이 떠오르는데 따라, 플레이토피아를 오픈하게 됐다. 플레이케이션은 놀이를 뜻하는 ‘플레이(Play)’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로, 편안한 휴식과 동시에 다양한 즐길 거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레이토피아는 패밀리 락 볼링장 ‘가인’은 온 가족이 함께 볼링을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레인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총 12개의 레인 중 3개 레인이 키즈 범



롯데호텔제주의 플레이토피아. /롯데호텔제주

퍼 볼링으로 공이 흠에 빠지지 않게 방지해주는 거터 범퍼가 설치돼 있어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볼링을 즐길 수 있다. /랜서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 중소·벤처기업 살리는 건 누가 잘 하나?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중소·벤처기업**,  
**신성장 유망기업** 등에 **15조원**을 지원, 생산적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금융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하나금융지주 · KEB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금융티아이



# 중 저장성과 자매결연 20주년 한·중 포럼

도시농촌기획설계 전문가 6명 방문  
20년째 지역 현안 주제로 교류 활성화

전남도는 중국 저장성과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4일 목포 상그리아호텔에서 도와 시군 공직자와 저장성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지역 우호교류 차원의 20번째 한·중포럼을 개최했다.

'제20회 한중포럼'에 저장성에서는 인민정부 가오이(高屹) 부비서장을 단장으로 도시농촌기획설계 분야 전문가 등 6명이 방문했다.

포럼 주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발전 방안'이다. 두 지역에서 대도시 집중화·고령화·저출산 등에 따른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이 현안으로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토론에서는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방향'을 천만화 저장성 도시농촌기획설계연구원 원립2소 부소장이 '3대 유산 연결지의 재생과 문화부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평군 석양마을 주포권역 활성화' 사례와 '저장성 항주우 기차역 주변의 구도시 개발' 성공사례 발표도 이뤄졌다.

이어 박종철 목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와 사례발표에 대해 두 지역 토론자와 열린 토론을 벌였다.

포럼에 앞서 저장성 대표단은 성공사례 지역인 한평 주포권역 다목적센터와 오토캠핑장, 한옥민박촌 등 전남지역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 현장을 둘러봤다.

선경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중국 저장성과의 우호교류 협력이 20년째 활발히 유지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포럼을 통해 두 지역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가꾸는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저장성과의 '한·중 포럼'은 1999년부터 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열리고 있다. 문화, 환경, 농업기술, 통상·투자, 관광교류 등 두 지역 현안을 주제로 순번제로 개최하고 있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



# 완도군, 슬로시티 비전 및 전략 논의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완도군 전 지역이 슬로시티로 변신을 시작했다. 완도군은 지난 3일 '슬로시티 완도 전 지역 확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날 한국슬로시티본부 부를 비롯한 완도군청 전 부서장이 모여 ▲1島 1색 (특색 있는 섬 만들기) ▲해양치유산업과 섬 재생 프로젝트 결합 ▲섬과 섬의 연결을 통한 관광객 동선 확대 등 완도 슬로시티 제3기 비전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산도가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에 이어 2013년 재인증 받았다.

지난 4월 완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슬로시티 인증도 받았다.

이에 군은 슬로시티 발상지로서의 발전 방향과 완도 전 지역 확대를 통한 권역

별 관광자원화와 슬로시티 운동 확대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잘 사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지난해 10월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 선정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추진 중인 사업이 슬로시티 전 지역 확대와 연계해 유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산도는 슬로시티 인증 이듬해인 2008년 관광객이 8만8000명 정도였지만 10년 후인 2017년에는 34만4000명으로 늘어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기획한 '2018 여름휴가 여행 조사-국내 여행지 만족도' 기초 자치·군 종합만족도에서 완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2위로 평가받았다.

/전남 완도=이재건 기자 wando1106@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1 | 해질 / 17:14

**12월 5일 (수)**  
음력 : 10월 28일

수도권 날씨: -4 ~ 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7/3, 동두천 -6/4, 가평 -6/5, 파주 -7/4, 서울 -4/4, 양평 -6/4, 인천 -3/3, 수원 -5/3, 용인 -5/3, 평택 -5/3, 백령도 0/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광주시, 청사 방호시스템 예산 삭감

방호 설치·커튼 교체 등 6억 전액 삭감  
공간 제약·낭비성 예산 반대 부딪혀

광주시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청사 방호시스템 사업비와 커튼 교체 비용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테러나 정보 유출을 막고 공무원 보호, 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해 예산을 세웠지만, 열린 공간을 제약할 수 있고, 낭비성 예산으로 흐를 수 있다는 반대론에 부딪혔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남 시·자치행정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청사 방호 시설물 설치비 3억원과 청사 내 커튼 교체비 3억원 등 모두 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내년부터 2년 간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방호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고 우선 3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1층 메인 통로 엘리베이터 탑승 구역에 '스마트형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체 게이트를 통과하는 이들을 경보음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8일 제8대 광주시의회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의회

시는 지난 2012년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업무중이던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데 이어 2016년 4월, 20대 공생(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인사혁신처 무단 침입과 성적조작 사건이 터지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방호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청사 정기감사에서 '보안이 허술하다'고 지적받은 점도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높였다.

그러나 '열린 청사' 표방으로 시민 출입이 자유로워진데다 시민단체 반발도 예상되면서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었고,

시의회 상임위도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인데,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건 성급하다. 좀 더 지켜보자"며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시는 또 청사 내 커튼이 햇볕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 공무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15년째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암막커튼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3억원을 책정했으나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모두 삭감됐다.

/광주=봉태형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평택시 '나눔의 열매를 맺다' 모금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성금전달식  
모금 목표액 5억... 참여 확산 독려

평택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경기사랑의열매)는 4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평택시, 나눔의 열매를 맺다' 모금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청 내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평택시, 나눔의 열매를 맺다' 모금캠페인은 민·관이 나눔의 뜻을 모아 지역 특화형 나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관내 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 설치로 평택시 나눔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관내 기업체, 단체, 시민들의 나눔 참여 확산을 독려할 예정이다.

온도탑 제막식 행사에 동우화인켐 임승훈 상무, YKK한국노동조합 송영범 위원장, 여성기업인협의회 최원희 회장, 평택상공회의소 이보영 회장, 평택도시공사 김재수 사장이 성금 전달을 위해 참여했으며, 사회복지협의회 김향순 회장도 자리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동우화인켐(9100만원), 평택도시공사(2800만원), YKK한



정장선 평택시장과 경기사랑의열매 이순선 회장 등은 4일 시청내에 사랑의온도탑을 설치하고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국(1000만원), 평택시 여성기업인협의회(200만원), 평택상공회의소(100만원)에서 성금을 기탁해,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동시에 나눔에 동참하여 따뜻한 기부 손길이 이어졌다.

올해 평택시 모금 목표액은 5억 원이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에는 캠페인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 시연과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기사랑의열매 강화봉 사무처장은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소중한 성금을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평택시 나눔의 온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7@

# "노천 불법소각 더 이상 안돼"... 순찰 강화

평택시, 민원 급증에 집중단속

평택시는 동절기를 맞아 농촌지역, 신축공사장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생활 불편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달말까지 집중단속 및 시민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각종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출장소, 읍면동 직원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 중심으로 현장순찰과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농부 후 발생된 폐비닐, 농업부산물, 낙엽 등을 소각하는 행위 ▲신축공사현장 폐목재 등 소각행위 ▲드림통 등을 이용한 간이소각기구 사용행위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폐목재 소각행위 등으로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평택=이보현 기자

장흥군

군민과 함께하는 '송년콘서트'

장흥군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2018 송년콘서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는 김경호 8인조밴드, 군조, 타이푼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며, 장흥군이 주최하고 JK아트컴퍼니가 기획한 이번 공연은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 관람료는 1층 2만원, 2층 1만원으로 개인 당 5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예매권은 5일부터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선착순 현장판매한다. /전남 장흥=유지훈 기자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하세요”**  
스타벅스코리아가 4일 오전 서울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신상품 6종을 선보이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케이크를 17일 까지 예약 주문을 통해 판매를 한다. /손진영 기자 son@

## 내년 2학기 경기 전체 고교 ‘무상급식’

경기도의회, 추경에 사업비 반영  
내년도 2학기부터 경기도 내 전체 고교로 무상급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도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4일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학기부터 도내 전체 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위원장은 “최근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내년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뜻을 모았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예산안을 의결하며 ‘고교 무상급식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을 부기 사

## 제기동·천호동 등 도시재생 후보지 선정

서울시, 주거지원 7곳 등 총 15곳  
서울시는 2018년도 도시재생 신규 희망지사업 대상지로 15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희망지사업은 2016년부터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주민역량 강화를 돕는 준비 사업이다. 시는 선정된 지역에 주민모임 공간 마련,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지역조사, 도시재생 의제 발굴 등 주민 스스로 노후주거지를 재생할 수 있도록 지역당 최대 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급변 선정된 지역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2곳, 주거지원 사업 7곳, 일반 근린형 사업 6곳 등 총 15곳이다. 우리동네살리기 희망지에는 동대문구 제기동, 관악구 은천동이 선정됐다. 주거지원 사업을 신청한 지역은 강북구 번2동 148번지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2동, 서대문구 홍제1동, 양천구 신월3동, 구로구 개봉1동, 영등포구 신길5동, 강동구 천호3동 등이다. 일반 근린형 사업지로는 중구 다산동, 성동구 사근동, 도봉구 쌍문1동, 은평구 응암3동, 구로구 구로 2·4동, 중랑구 중화2동 등이 선정됐다. 예비후보지는 광진구 자양4동, 중랑구 망우본동, 양천구 목3동이다. /김현정 기자

## 가락시장 현대화... 내년 채소2동 설계

농수산식품공, 재검토 끝내고 착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에 1공구 채소2동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채소2동의 건물 연면적은 5만7067㎡이다. 이곳에서는 배추, 무, 양배추 등 김장 양념류 11개 품목이 거래될 예정이다. 이전 대상 중도매인은 총 356명이다. 공사는 농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위생적인 거래, 효율적인 물류를 위해 온도관리 가능한 정온 설비와 차량이 건물내부로 출입하지 않는 전면하차거재를 전제로 설계했다. 공사는 지난 6월 채소2동 중간설계 후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당초 승인된 공사비 786억원보다 393억원 증가한 1179억원으로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했다. /김현정 기자



가락시장 전경.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분쟁 88% 서울·경기·인천서 발생

# 가맹-대리점 문제 머리 맞댄다

### 공정거래 지방화 합동토론회

가맹브랜드 70% 3개 지자체 위치  
내년 바뀌는 지자체의 역할 모색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역할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된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 건수의 88%가 3개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부터 새로워지는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방향과 가맹희망자에게 제



공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앞두고 시행되는 토론회인 만큼 업무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토론회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행정기관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비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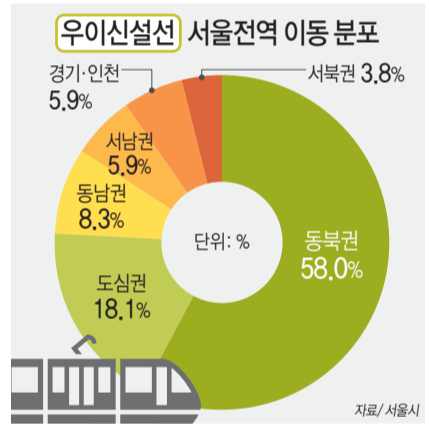
여한다. 서울시경제민주화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를 주제로 모두 연설한다. 이후 ▲공정경제 실천사례 및 신규업무 추진방향(공정위 및 각 지자체)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등록 업무에 대한 유관단체 건의사항(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토론회 참석자와 청중간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3개 지자체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처리 표준화 작업을 공동 수행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2019년은 공정거래 정책이 지방분권형 협업체제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되는 중요한 해”라며 “지자체에 권한이 분담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행정체계를 갖추고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우이신설선 개통... 출퇴근 30분 줄었다

### 서울시,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동북권 출·퇴근 각각 4.6분·5.2분 ↓  
수유·길음역 등 7개역 혼잡도 개선

지난해 우이신설선 개통 이후 신설동~우이동 구간 출퇴근 시간이 약 30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일 우이신설선 개통에 따른 교통편의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통카드 빅데이터 1242만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우이동에서 신설동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시내버스와 비교해 출근 길은 최대 33분, 퇴근길은 최대 27분 더 빨랐다. 개통 전후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 시간이 가장 줄어든 동선은 동북권(강북, 성북, 동대문 등) 내에서의 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이신설선 이용 패턴 중 58%를 차지하는 동북권 내 이동은 출근 시



4.6분, 퇴근 시 5.2분이 단축됐다. 동대문구를 오가는 승객은 출근 9분, 퇴근 11분, 강북구는 출근 5분, 퇴근 10분, 성북구는 출근 7분, 퇴근 4분가량을 절약했다. 환승 횟수 감소 효과는 동북권 밖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승객에서 두드러졌다. 출근 시에는 서북권이 0.74회, 퇴근 시에는 동남권 0.94회로 가장 많이 줄었다. /김현정 기자

기존 지하철 역사와 버스 이용수요를 분산시켜 혼잡도를 개선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통 전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됐던 수유역, 길음역 등 인근 7개 역사의 승객 수는 최대 14% 감소했다. 우이신설선과 동일구간을 운행하는 1014번, 1166번 시내버스는 차내 혼잡도가 줄고, 통행시간도 최대 6분 단축됐다. 우이신설선 개통으로 역 주변 이용객이 일평균 8만2000명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었다. 북한산우이역 일대는 이용객이 약 1.6배 증가했고, 주말 이용객은 평일보다 약 1.4배 늘어났다.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통해 우이신설선 개통 후 동북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증대된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분석 결과와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교통 소외지역 해소와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교통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노니’제품서 쇠가루 검출 서울시, 9개종 기준치 초과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열대 식물 ‘노니’ 제품에서 3개 중 1개꼴로 기준치 이상의 쇠가루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노니 제품 27종의 안전성 조사 결과 9개 분말·환제품에서 쇠가루가 기준치보다 6~56배 초과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10월 23~31일 온라인 판매제품 12개, 오프라인 판매제품 15개 등 총 27개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서 금속성 이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7개 중 9개 제품이 쇠가루 기준치(10mg/kg 미만)를 초과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수거제품 중 수입 완제품 4건에서는 부적합이 없었으며, 부적합 모두 국내 제조·판매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정 기자

## 서구·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추가 지정

인천시교육청, 5년간 운영키로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 교육혁신지구를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에 이어 서구, 연수구 2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교육혁신지구는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학교,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은 2015년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2017년에 계양구, 부평구, 중구로 확대됐으며, 2019년에는 서구, 연수구까지 추가 지정돼 내년에는 6개의 교육혁신지구가 운영된다. 이번 지정된 서구와 연수구는 마을교육자원 발굴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마을학교 운영,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감성문화예술교육 운영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제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 1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혁신지구 확대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공동체가 조성돼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실현하는데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밝혔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o@



[통신사 5G전략]  
SKT '자율차'  
KT 'AI'  
LG '원격제어'  
03



Life

[라이프]  
e커머스업계  
연말까지  
파격할인 행사  
나



# “장군명군” 노인들의 핫플레이스 된 독립운동 성지

## 되살아나는 서울

### 31 종로 '탑골공원'

3·1 운동의 발상지가 종로 탑골공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탑골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원이자 독립운동 성지이다.

과거 탑골공원 터에는 고려 시대부터 내려 온 고찰, 흥복사가 있었다. 세종은 1464년 흥복사를 중건해 원각사를 세웠다. 도성 3대 사찰로 번창했던 원각사는 연산군이 1504년 이곳에 연방원이라는 기생방을 만들면서 사찰로서의 기능을 잃게 됐다.

이후 중종의 승유역불 정책으로 원각사 재목이 관청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면서 사찰 건물은 자취를 감췄다. 원각사가 있던 자리에는 원각사지 10층석탑과 원각사비만 남게 됐고, 탑이 있는 지역이라 하여 '탑골'로 불리게 됐다.

탑골 일대가 공원으로 만들어진 건 19세기 말이다. 공원은 고종 34년(1897년) 총세무사로 있던 영국인 브라운의 제안으로 조성됐다. 원각사 탑이 있던 장소라 하여 파고다(Pagoda·탑)공원으로 개원했으나 1992년 5월 옛 지명인 탑골공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 ◆3·1 운동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

“吾等(오동)은 茲(자)에 我朝鮮(아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과 조선인이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민족임을 선언한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서문이 낭독됐다. 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탑골공원은 독립운동 성지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지난달 23일 3·1운동의 발상지 종로구 탑골공원을 찾았다.

종로3가역 1번 출구로 나와 약 4분을 걸자 삼일문이라는 현판이 보였다. 공원에는 팔각정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3·1운동 기념탑, 손병희 선생 동상, 원각사비, 만해용운당 대선사비, 3·1운동 기념 부조, 탑골공원 사적비가 차례로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은 원각사지 10층석탑과 팔각정이었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세조 13년(1467년) 경천사 십층석탑을 본떠 만든 것으로 공원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석탑의 높이는 약 12m이다.

탑의 하단부에는 용과 연꽃무늬가 새겨졌고, 중간에는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인도에서 불법을 구해오는 과정이 그려졌다. 상단부에는 부처님의 전생 설화와 일생이 조각됐다.

탑은 보호 유리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시는 지난 1999년 석탑의 훼손을 막기 위해 유리로 만들어진 보호각을 설치했다. 원각사지 10층석탑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다른 석탑과 달리 대리석으로 지어져 산성비와 공해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경기도 안산에서 온 김용만(64) 씨는 “55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정교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런데 탑이 유리 감옥에 갇혀 있어 답답한 느낌을 준다”면서 “누가 저런 발상을 했는지



지난달 23일 탑골공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팔각정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탑골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유리보호각으로 둘러싸인 원각사지 10층석탑을 관람하고 있다.



민족 최초의 시민운동 발상지인 종로구 탑골공원.



탑골공원 북문 앞에 모인 노인들이 장기 대국을 구경하고 있다.

### 독립선언서 낭독된 3·1 운동 발상지 조선시대 황실 음악 연주했던 팔각정 대리석으로 지은 원각사지 10층석탑도

### 할아버지들 가장 많이 찾는 공원 모여 앉아 장기 대국 구경하기도

모르겠지만 조형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지나친 과보호라며 혀를 끝끝 찜했다. 팔각정은 고종 때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팔각 정자다. 5단의 층단식 석축 기단 위에 마루 없이 기둥을 세운 구조로 이뤄졌다.

이날 팔각정 앞에서 만난 대학생 김상기(21) 씨는 “이곳이 3·1운동 발상지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것이 아쉽다”며 한숨을 쉬었다. 조선 시대 때 황실 관현악단이 음악을 연주했던 장소인 팔각정은 3·1운동 당시 학생대표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족 최초의 시민운동 시발점인 삼일대로(안국역~탑골공원) 일대를 역사상징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탑골공원 후문광장 바닥에 3·1운동 만세 물결을 상징하는 발자국 모양을 새기고, 주차장으로 단절된 삼일대로변 보행길을 정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운동 준비와 전개 과정에 중요한 배경이 된 역사적인 장소들은 현재 그 흔적이 사라졌거나 방치돼 있다”며 “3·1운동 발상지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해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노인들 만남의 광장

노인들은 탑골공원 북문 앞에 웅기종기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다. 이날 만난 한 노인은 “공원 안에서는 장기 못뭉. 내뿔어서”라며 씩씩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공원 내에서 장기를 두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라며 “장기판이나 바둑판을 대여해주는 등의 상행위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동안구에서 온 김수만(90) 할아버

지는 “인덕원에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왔다”면서 “이 나이가 되면 어디 갈만한 데도 없고 심심하다. 그런데 여기 오면 또래 노인네들 만나는 재미가 있다”며 마지막 남은 아랫니 네 개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다.

김 씨는 날이 더 추워지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내 울상을 지었다. 종로구 관계자는 “공원 일대에 추위 대피소(비닐 천막) 등을 설치할 계획은 현재 없다”며 “탑골공원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타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65세 이상 노인에게 발급되는 무임교통카드 이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탑골공원이 있는 종로3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0월 말까지 어르신들이 집중된 시설 주변의 도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고 위험으로부터 교통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차량 감속 유도시설(과속방지턱, 과속경보표시 장치), 보·차도분리시설, 보도삼킴터 등을 조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탑골공원 일대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탑골공원 근처가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 사업과 연계돼 있어 보행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신 종묘공원주차장 쪽에 노인 보호구역 4개소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해가 저물어 주위가 어둑해지자 불쾌하게 취한 노인들이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사람들로 붐볐던 공원 후문에는 두 명의 노인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이내 이들 사이에서 훈훈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박모(77) 할아버지가 장기를 같이 둔 김모(82) 할아버지에게 “형님, 내가 살 테니까 저기 올라가서 막걸리 한 사발 하이소”라며 술한잔을 권했다.

김 할아버지는 “나는 처음 본 사람한테 폐 끼칠 수 없다. 값을 능력도 없고”라며 말을 흐렸다. 그는 박 할아버지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했다. 약 10여분 간의 대치 끝에 더 늙은 노인이 덜 늙은 노인의 손에 이끌려 자리를 떠났다. 오후 6시, 탑골공원으로 출근했던 노인들이 모두 퇴근했다.